

일반논문

이소희 | '나'에서 '우라'로: 허정숙과 근대적 여성주체

진선영 | 송계월 서사 연구

김은하 | 시민적 '연애 공론장'의 탄생과 유희의 서사:

50년대 신문연재소설을 중심으로

이은영 | 1950년대 여성시에 나타나는 애도와 우울

: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

김난희 | 1980년대 한국 여성시에 나타난 웃음과 그 시적

언어의 정치성

김순아 | 현대 여성시에 나타난 '빈 몸'의 윤리와 감각화 방식

: 이수명, 조용미의 시를 중심으로

'나'에서 '우리'로: 허정숙과 근대적 여성주체*

이소희**

차례

1. 서론
2. '나' 여성사회주의자 허정숙
 - 2-1. 계몽주의 여성운동 (1920년~1921년)
 - 2-2. 사회주의 사상 입문 (1922년~1924년)
 - 2-3. 사회주의 여성운동 (1924년~1925년)
 - 2-4. 국제부인데이와 청년여성운동 (1925년)
3. '나'에서 '우리'로: 근대적 여성주체와 여성운동
 - 3-1. 『동아일보』: 여기자로서의 여성운동 (1925년)
 - 3-2. 『신여성』: 개성적인 여성주체 (1925년~1926년)
 - 3-3. 단발: 근대적 여성주체의 아이콘 (1925년 8월)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여성들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인물, 허정숙이 공적인 지면에 발표한 구체적인 자료들과 그의 여성운동 활동 궤적을 미시적으로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20380). 이 지면을 빌어 필자가 허정숙을 학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Univ. of Hawaii at Manoa, Center for Korean Studies의 김영희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2년 2월 16-17일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개소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Tapestry of Modernity: Urban Cultural Landscape of Colonial Korea, 1920s-1930s”에서 필자의 허정숙 관련 논문 발표와 그에 대한 토론으로부터 본 연구가 촉발되었다.

**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읽어냄으로써 그가 추구했던 근대적 여성주체의 개념과 변화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허정숙 관련 연구는 “붉은 연애”와 사회주의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지만 본 연구는 허정숙을 “조선의 여성주의 운동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시기는 1920년 여름 그가 <조선여자교육회> 활동에 가담한 시기로부터 1926년 5월 미국여행을 떠나기 전까지이다. 허정숙은 이 시기동안 조선 여성들이 “이중 노예”의 생활에서 “개성”을 가진 “근대적 여성주체”로 변환할 것을 주장했고 그 자신이 단발 등의 행위를 통하여 문화적 여성운동을 직접 실천했다. 1920년 여름부터 조선 최대의 여성교육운동 단체인 <조선여자교육회>를 통하여 계몽주의 여성운동에 참여하였고 1922년 이후 상해에서 사회주의 사상에 입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사회주의 여성운동으로 방향 전환을 하였다. 1924년 5월 <조선여성동우회>의 창립 발기인으로, 또 1925년 1월 <경성여자청년동맹>에도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1925년 3월 8일 조선 최초의 “국제부인데이” 기념행사도 주도하였다. 1924년까지는 “나” 여성사회주의자 허정숙으로서 “여성해방은 경제적 독립이 근본”이라는 점을 선언적으로 주장하였으나 1925년 1월 입사한 『동아일보』에서의 경험은 식민지 조선사회의 현실과 “우리” 조선 여성의 여성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경험은 허정숙이 식민지 조선사회의 현황을 진단하여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관점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결과 1925년 하반기부터 『신여성』에 발표된 허정숙의 글들은 주로 “우리 조선여성”들이 어떻게 근대적 여성주체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선여성의 개인적 자아 “나”와 조선여성 전체 “우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우리 조선여성”들이 함께 개선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조선여성 개개인이 봉건적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자아”를 인식하고 “번민”하여 “근대적 여성주체”로 전환하고 “우리의 OOOO의 결함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

장된 여성사회주의자로서의 면모보다는 “우리 조선여성”이 처해있는 봉건적 일상생활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추구하는 “조선의 여성주의 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봉건에서 근대로 이행하던 시기인 1920년대 초·중반 “조선의 여성운동가” 허정숙은 조선여성 개개인 “나”의 차원에서 개성적인 여성주체가 되는 의식혁명으로부터 조선여성 전체 “우리”가 근대적 여성주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회 구조적인 개혁에 힘 쓸 것을 주장하였다.

핵심어 : 허정숙, 근대적 여성주체, 신여성, 여성운동, 여성, 젠더

1. 서론

2014년 10월 25일(토) ‘근대성의 검토’를 주제로 진행된 “문화의 안과 밖” 39회차 강연의 주제는 “여성·젠더·제도: 근대의 패러독스”였고 연사는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였다. 이 강연에서 조은 교수는 “여성과 젠더는 근대의 패러독스가 가장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장”이며 “‘여성’은 ‘여성’이라고 호명하고자한 사회세력에 따라 의미도 의도도 다르기에 고정된 범주가 아니라 유동적인 의미투쟁의 장”임을 주장하였다.¹⁾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근대의 패러독스가 작동하는 영역으로 신여성에 대한 담론과 한국사회에서 여성 노동력의 참가 및 경제활동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우리 역사에서 신여성의 등장 이후 그에 대한 담론과 관심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면 한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의미투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젠더·(성별)제도가 초기 근대성과 만나는 지점으로 ‘신여성’은 주목할 만하지만 신여성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평가되고 담론화 됐는가는 한국사회 젠더 정치의 면모를 보

1) 강연 발표자료 및 『교수신문』 제754호, 2014.11.3.

여주는 흥미로운 장이며 또한 담론의 정치성을 보여주는 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제 식민 치하에서 신여성이 과잉 담론화 됐다면 해방이후 최근까지 신여성은 과소 담론화 됐다는 것이다.²⁾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성학자들이 신여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90년대 후반에 오면 신여성 담론은 전통 대 근대, 식민 대 민족, 계급 대 성의 다중 구조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는 신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들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담론의 구조와 젠더 재생산 기제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에 오면서 신여성은 젠더화된 근대와 근대 민족주의 담론의 역설적 지점으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식민 치하에서와는 달리 더욱 다층적인 이유로 “과소” 담론화 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조은 교수는 “젠더 정체성을 어떻게 담론화하고 젠더 담론의 정치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페미니스트에게는 여전히 과제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제 (agenda)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실천의 지점”이라고 역설했다.

허정숙과 관련된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신여성 및 사회주의 여성운동과 관련된 연구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그 결과 우리의 근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담론으로서의 ‘신여성’ 연구는 한국사회의 근대성 형성을 설명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할 만큼 연구역량을 축적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신여성 개인의 사상과 활동을 조명한 연구는 극소수이며 특히 그들의 여성주의 사상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당시 사회적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해 왔는가를 밝혀낸 연구는 없다. 아직도 “신여성”에 대한 호명은 대부분 그룹으로 존재하며 개별적인 여성주체로서 연구된 신여성은 나혜

2) 1950, 60년대는 신여성들을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이미지화함으로써 반론 없이 신여성을 비난하는 논리를 폈다. 1970년대의 신여성에 대한 관심은 가부장제에 저항한 ‘신여성’이 아니라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지식인에 대한 관심이며 1980년대 오면서 신여성에 대한 조명은 계급론적인 입장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신여성(나혜석, 김일엽(원명 김원주), 김명순 등)과 사회주의 계열의 신여성(허정숙, 강경애, 박진홍 등)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시각은 1990년대까지 이어진다. 앞의 글 참조.

석과 허정숙, 그리고 박인덕 정도가 있을 뿐이다.³⁾ 본 연구의 목적은 신여성들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인물, 허정숙이 공적인 지면에 발표한 구체적인 자료들과 그의 여성운동 활동 궤적을 미시적으로 읽어냄으로써 그가 추구했던 근대적 여성주체의 개념과 변화과정을 규명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학연구에서 흔히 택하는 연구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본 연구는 허정숙 자신의 자아 변화 및 확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의 여성주의의 관점과 여성운동의 방향, 그리고 그 전략이 변화해간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II에서 논의하고 있는 “나”는 허정숙의 여성운동가로서의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III에서 논의하고 있는 “나”는 허정숙 자신이 아니라 그의 여성주의 사상의 출발점이 되는 조선여성 개개인 “나”를 지칭하며 “우리”는 조선여성 개개인이 모여 이룬 집합적 전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에서 “우리”로”는 “조선의 여성운동가” 허정숙의 여성주의 사상이 변화해 간 궤적을 보여주는 것이며 허정숙의 글쓰기를 통하여 그의 여성운동 목표와 방법을 규명해 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허정숙 관련 연구가 부분적으로, 단면적으로 진행되어 왔던데 비하여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함께 포괄적으로 “여성주의자 허정숙 읽기”를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은 시기는 1920년 여름 그가 <조선여자교육회> 활동에 가담한 시기로부터 1926년 5월 미국여행을 떠나기 전까지이다. 이 시기는 한국 역사에서 근

3) 나혜석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상경, 『나혜석 전집』, 2000, 태학사, 이상경, 『인간으로 살고 싶다-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한길사, 2000, 김은실, 『조선의 여성 지식인 나혜석의 근대성을 질문한다』, 『한국여성학』 제24권 2호, 2008, 147~186쪽이 있으며 허정숙 관련 연구로는 서형실, 『허정숙: 근우회에서 독립동맹투쟁으로』, 『역사비평』 21, 1992, 279~287쪽, 서형실, 『정열의 여성운동가 허정숙』, 『여성과 사회』 3, 1992, 198~222쪽, 강혜경, 『일제하 허정숙의 기자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0, 2007, 81~117쪽, 권수현, 『허정숙의 여성론 재구성』, 『페미니즘연구』 제10권 1호, 2010, 247~283쪽, 박인덕 관련 연구로는 이소희, 『9월 원숭이』에 나타난 자전적 서사 연구: 신여성의 근대 체험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제40집 2호, 2008, 173~213쪽 등이 있다.

대 여성운동이 발아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로 많은 여성운동가들 중에서도 허정숙의 활동이 특히 눈에 뜨인다. 그 이유는 첫째 허정숙은 자신의 사상을 여러 지면을 통하여 정열적으로 발표하였고 오늘날 우리가 그 자료들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둘째 허정숙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현장에서 여성운동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이를 성찰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공적인 지면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크게는 자유주의 부르주아적 신여성들과 사회주의 계열 신여성들과의 차이점이며 작게는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 중에서도 허정숙 자신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생각들을 비판과 비전을 함께 담은 글로 정리하여 공적인 지면에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봉건적인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근대적인 여성주체, 신여성이 주목받았던 시기이며 허정숙은 이 시기동안 조선여성들이 이중 노예의 생활에서 개성을 가진 “근대적 여성주체”로 변환할 것을 주장했고 그 자신이 그러한 여성운동을 직접 실천했던 시기이다. 그러므로 허정숙은 “행동하는 이론가”였으며 “통찰력 있는 현장 활동가”였다. 특히 한국 여성(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인 두 지면, 잡지 『신여성』과 기관지 『근우』에 가장 중요한 필자로 참여함으로써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여성운동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1929년 『근우』를 통해 발표했던 허정숙의 여성주의 사상은 1946년 5월 설립된 북한 최초의 여성기관 <조선민주여성동맹>의 기관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⁴⁾ 통일 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여성주의 사상가이자 여성운동가로 허정숙을 재평가할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허정숙 관련 연구는 신여성 담론의 다양한 주제에 따

4) Ruth Barraclough, “Red Love and Betrayal in the Making of North Korea: Comrade Ho Jong-suk”, October 22, 2013, USC Korean Studies Institute Seminar. 『조선여성』이라고 명명된 이 저널은 1946년 7월 30일 북한에서 남녀평등법이 발표된 지 3개월 후인 1946년 10월에 창간되었으며 편집의 글은 허정숙이 썼다고 한다. 이 자료는 현재 호주국립도서관 북한자료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라 단편적으로 삽입되었고 더욱 아쉬운 점은 그 마저도 편향적으로 “호명” 되었다는 점이다. 1920년대와 30년대 신여성 담론이 “근대의 과잉” 이라면 지금까지 연구된 허정숙 담론의 대부분은 “붉은 연애와 사회주의의 과잉”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붓물을 이룬 신여성 연구 역시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성사회주의자로서 허정숙 개인적 삶의 “붉은 연애” 경력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한국전쟁 이후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에서 가장 성공한 최고위급 여성”이라는 점 때문이다.⁵⁾ 그러나 허정숙은 신여성으로만, 또는 여성사회주의자로만 범주화하기에는 일체치하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주의자”로서, 또 “여성주의 운동가”로서 매우 큰 자취를 남겼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 근현대사에서 활동한 여성주의자 및 여성주의 운동가 중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정리하여 다양한 글의 형태로 남겼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허정숙의 여성주의 사상을 단편적인 정보로만 알고 있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미흡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허정숙의 여성주의 사상이 당시 식민지 조선여성의 현실과 조우하여 상호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천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허정숙의 여성주의 관점이 조선여성 개개인 “나”와 조선여성 전체 “우리”라는 개념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면서 “근대적 여성주체” 개념으로 변화해 왔는가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므로 1926년 미국여행 전까지로 한정한다. 1926년 5월 30일부터 1927년 10월 25일까지⁶⁾ 미국여행 이후 그의 여성운동은 <근우회>를 중심으로 약 2년여 지속되었고

5) 허정숙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귀환하지 얼마 안되어 김일성을 만났고 곧 김일성은 허정숙에게 조선노동당 기관지 『정로』(이후 『로동신문』)의 기사작성과 편집업무를 맡겼다. 그 후 여러 가지 중요 직책을 맡았으며 1946년 5월 10일 ‘조선민주여성동맹’ 제1차 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범 때는 1차 내각의 문화선전상을 1957년 8월까지 맡았으며 곧이어 사법상을 맡아 1959년 8월까지 일했다. 권수현, 앞의 글, 256쪽.

6) 『허정숙 여사 아버지를 따라 서양만류』, 『동아일보』, 1926.5.30.
『허정숙 여사 25일 귀국』, 『신한민보』, 1927.10.27.

“근우회 사건”으로 불리는 “경성여학생만세사건” 활동으로 요약되는데 이때는 이미 “우리 조선여성”으로서의 사상이 확립된 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허정숙이 남긴 글들과 개인적 삶의 경험, 그리고 그의 여성운동 활동을 주요 시기별로 천착함으로써 그가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추구했던 “근대적 여성주체”의 구체적인 개념을 밝혀내고 이에 따라 허정숙이 취했던 여성운동의 방향과 활동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규명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2015년 현재 “여성주의자 및 여성운동가 허정숙”을 다시 호명하고 허정숙 담론의 정치성을 보다 포괄적인 한국 근현대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확보하고자 한다.

2. ‘나’ 여성사회주의자 허정숙

2.1. 계몽주의 여성운동 (1920년~1921년)

허정숙은 1903년 함북 명천에서 아버지 허헌(변호사)과 어머니 정보영 사이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났다.⁷⁾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상운동가, 항일 운동가들의 재판을 도와주며 당시 국내의 중요 인물들과 많은 교류를 하였다. 따라서 그의 집에는 항상 많은 사상가들과 항일 운동

7) 허정숙이 태어난 해는 1902, 1903, 1904, 1906, 1908년 등으로 소개되어 있다. 허정숙의 동생 허근옥은 1903년이라 하고 일반 논문에서는 1902년으로 적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1908년으로 표기하고 있다. 서형실은 허정숙이 “해방직후 북에서 왕성한 활동을 수행해가는데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출생연도를 늦췄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열의 여성운동가 허정숙』, 『여성과 사회 3』, 1992, 200쪽. 1930년 1월에 보안법 위반으로 심문받을 때 작성된 조서에 따르면 1904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조서 마지막에 민적상으로는 1904년이지만 실제로는 1903년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와 있다. 송진희, 『허정숙의 생애와 활동: 사상과 운동의 변천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3쪽.

가들이 모여들었다.⁸⁾ 1910년 허헌은 원산에서 기독교를 전도하는 이동회를 만나 향리와 서울에 교회를 세우고 청년교육에 전념하면서 기독교인으로도 활동하였다.⁹⁾ 이러한 집안 분위기에 따라 허정숙은 다양한 사상과 지식을 간접 경험할 수 있었다. 어린 시절 허정숙은 일본으로 유학 간 아버지를 기다리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딸 하나만을 낳아 가문의 대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고민을 안고 사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봉건적 가족구조의 폐단을 경험하며 자랐다. 동생인 허근옥은 언니 허정숙의 이러한 어린 시절 체험이 “봉건적 가족 구조의 폐단을 거부하는 자유분방한 개성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다.¹⁰⁾ 허정숙은 1913년 배화여고보에 입학했는데 글과 시를 잘 지어서 백일장 등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¹¹⁾ 1917년 배화여고보 졸업 후 평양고등여학교에 편입하여 1년간 수학하고 1918년에 졸업했다. 곧 이어 1918년 이화학당 전문부에서 1년여 동안 재학했으며 1919년 일본 고베의 신학교인 관서학원으로 유학 갔다가 엄격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1920년 허정숙은 배화여고보 시절 영어선생이었던 차미리사(車美理士)의 권유로¹²⁾ <조선여자교육회>에 참여해 활동하게 된다.¹³⁾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여

8) 허근옥, 『나의 아버지 허헌과 언니 허정숙』, 『역사비평』 26, 1994, 211~217쪽.

9) 이 때 맺어진 허헌과 이동회의 관계는 10여년 후 허정숙이 상해 유학을 갈 때 당시 상해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이동회에게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Ruth Barraclough 발표문.

10) 허근옥, 앞의 글, 217쪽.

11) 허근옥, 『나의 언니 허정숙』, 『북한』 10, 1972, 284쪽.

12) 차미리사는 김씨 닉으로 출가하여 김미리사, 김밀이사 등으로 지칭되었다. 『신여성』 제7권 2호, 1933. 2, 『강한 자여! 그대는 여자니라』에 게재된 차미리사(당시에는 김미리사로 통용됨)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16세 어린 몸으로 남편을 잃어버린 선생”이란 표현이 나오며 그에 대하여 “기자는 말로만 선생의 위인 되심을 듣다가 직접 선생을 대하여 보고 비로소 여장부로의 선생의 굳센 일면을 엿본 듯이 생각되었다. 선생은 과연 현대 조선이 가진 위인의 한사람이라고 곰곰히 생각된 것이었다”(43~44쪽)라고 평하였다.

13) 이 단체의 창립 주체는 차미리사, 김선, 방신영 등 기독교계 여성들이었으며 계몽적 성격이 강하였다. <조선여자교육회>는 1921년 전국순회강연을 통해 모은 돈으로 청진동에 가옥을 마련하고 1923년 근화여학교(근화학원)를 설립했다. 그러나

성운동 현장 경험이다.

개화기 이래 여성운동은 주로 여성교육의 진흥에 초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국민의식 속에 널리 퍼져 있었다, 특히 1919년 3·1운동에서 여교사, 여학생, 여전도사 등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활약이 매우 두드러져서 여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더욱 크게 일어났다. 또 여성교육 희망자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므로 신교육에 접하지 못한 부녀교육을 위해 야학강습소가 설치되고 토론회와 여성용 잡지 등의 발간을 통하여 여성교육을 실행하게 되었다. 1920년 2월에 창설된 <조선여자교육회>는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조직되었으며¹⁴⁾ 창립 목표는 인습을 타파하고 여자보통교육의 보급을 주창하였다. 운동의 목적은 가정 개혁 및 구가정에 있는 무식한 여자에게 상식을 가르치는 것이며 운동방법은 야학강습소의 개설, 여자강연회, 토론회 및 월간 기관지 『여자시론』(女子時論)의 간행 보급이었다. 이 때 시행했던 야학강습소는 크게 인기가 있어서 주부 학생들로 만원을 이루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새로운 배움을 찾는다는 이유로 동경 유학생 남편들로부터 이혼당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 협회의 회장인 차미리사는 이러한 여성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현재 해결해야 할 허다한 문제 중 제일 큰 문제는 교육인데 그 중에서도 여자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요사이 걸핏하면 이혼이니 무엇이니 하여 가정풍파가 나는 것은 모두 여자교육을 진심으로 요구하는 현상이올시다. 물론 이후에는 여러 가지 사고가 있겠지만 대개는 여자가 남자보다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총독부가 “근화”라는 이름이 조선의 국화를 상징하여 불온하다고 탄압이 심해지자 1938년 1월 “덕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날 “덕성학원”에 이르렀다. 한상권, 『일제강점기 차미리사의 민족교육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6, 2001, 385, 394쪽.

- 14) <조선여자교육회>는 1920년 2월 20일 창립되었으나 <조선여자교육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1922년 1월 조선총독부의 공식인가를 받았다. 이후 “여성교육에 대한 조사 연구와 여성 교육의 보급 및 발달”이라는 새로운 설립 목적을 내세워 “교육잡지의 발행, 여성교육의 공로자 표창, 여성강습회 개최” 등 구체적 사업을 전개하였다. 『조선여자교육협회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2.3.25.

말했다.¹⁵⁾

허정숙이 생애 처음으로 여성운동 현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누구의 영향을 받았고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가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우리” 조선여성의 현실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는 동시에 개인적 자아 “나”에서 집합적 자아 “우리”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는 <조선여자교육회> 활동을 통해 봉건적인 일상생활에서 많은 조선여성들이 “부덕”이라는 미명하에 감당해 내야하는 다양한 질곡의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허정숙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주의 여성운동”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계몽주의 여성운동”에 근거하여 현장 여성운동 경험의 시발점이 된 이때의 강연 활동은 연구자들로부터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¹⁶⁾ 그러나 허정숙은 차미리사와 함께 전국적으로 강연을 다녔으며¹⁷⁾ 1921년 7월 이후 <조선여자교육회> 전국 순회강연단에 참여함으로써 본격적인 여성운동 현장을 직접 체험하였다.

1921년 7월 9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기사 『조선여자교육회 순회강연단 발표 연사 및 일정』에 따르면 7월 9일 경성을 떠나 9월 29일 남대문에 돌아올 때까지 장장 84일 동안 67곳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였다. 7월 5일 경성 강연을 필두로 7월에만 전국적으로 21차례 순회강연을 계획, 실시

15) 『동아일보』, 1921.3.21. 1933년 2월 『신여성』과의 인터뷰에서 차미리사는 <조선여자교육협회>가 대상으로 했던 많은 여성들이 봉건사회에서 더욱 억압받고 질곡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혼하거나 사별한 여성들임을 재차 강조했다. “남달리 몰라해한 환경에 놓여있는 위에 더욱이나 남편에게 이혼당하거나 과부가 되거나 하면 이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폐인(半廢人)으로 고단한 일생을 가장 비참하게 마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이러한 여자들을 교육하리라 결심하고 몇몇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조그맣게나마 여자교육기관을 창설한 것이 이 학교의 시초이다”(47쪽).

16) 서형실과 권수현은 허정숙이 어머니의 삶으로부터, 또 『동아일보』 기자생활을 통해서 당시 조선여성들의 봉건적인 삶을 인지한 것으로 해석했는데 실제로 허정숙은 기자 생활보다 앞서서 <조선여자교육회>의 전국 순회강연을 다니면서 조선 전국에 있는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가를 몸소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17) 1921년 4월 경남 창녕부인회 강연 기록, 『동아일보』, 1921.5.4.

하였다.¹⁸⁾ 7월 5일 경성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개최된 강연 프로그램 중 하나는 “현대시대”라는 제목으로 연사가 “허정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음악부 프로그램은 피아노 합주로 “허정자, 송경애”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동아일보』는 7월 11일 1면 머리기사로 “조선여자교육회의 하계 지방 순회강연은 암흑에 침잠해있는 조선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향상을 위해 희생적인 노력을 하는 조선여자계의 일대 광명이며 생명있는 신운동이다”라고 극찬하였다.¹⁹⁾ 허정숙은 7월 9일 개성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현시 청년 남녀의 고민하는 이혼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으며 이 때 개성여자교육회와 청년회, 사립 정화여학교생도합 100 여명이 정거장까지 출연하여 환영의 뜻을 표했고 연조금이 답지하였다는 기사가 『동아일보』와 『매일신보』 7월 12일자에 게재되었다.²⁰⁾ 7월 12일 경이포에서 허정숙이 진행한 강연의 제목은 “안락한 가정”이었고 이 기사는 『동아일보』 7월 16일자에 게재되었다. 또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 평양 남산현 예배당에서 진행된 허정숙의 강연은 “가정은 인생의 낙원”이었다. 7월 25일 의주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 허정숙은 강연은 하지 않고 음악 연주만 하였다.²¹⁾ 이튿날인 7월 26일 장연에서 허정숙은 “조혼의 해독과 부모의 각성” 주제로 강연했으며 유지인사의

18) 전국 순회강연단의 자세한 프로그램은 한상권, 앞의 글, 375~379쪽 참조.

19) 『동아일보』 1921.7.11. 「여자교육회의 순회강연 여자해방의 신운동」

20) 특히 『동아일보』는 <조선여자교육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취재하였는데 이는 『동아일보』가 1920년대 초반 문화운동의 선전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며 청년회 운동을 지도 후원하고 있었다. 청년회와 『동아일보』가 <조선여자교육회>의 전국순회강연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후원을 아끼지 않은 까닭은 문화운동이라는 이념적 일치 때문이었다. 한상권, 앞의 글, 381쪽.

21) 1921년 7월 25일 『동아일보』에 「여자순강단 의주착」이란 제목의 기사는 이들의 활동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적고 있는데 특히 시작 부분에서 “반만년이나 규중에 처하여 구속과 부자유를 받아오던 우리 조선 여자도 시대의 사조와 사회의 진보에 있어 우리도 남과 같이 여자다운 여자가 되지 아니하면 일천만이나 되는 우리 여자 사회는 무가치한 또한 무의미한 생활을 면치 못할 것이요, 더욱이 구가정부인에게 교육이 어떠한 것인 줄 선전키 위하여 여기 조선여자교육회에서 하기(夏期)를 이용하여 각 지방을 순회 강연케 되었다”라고 강연단의 목적과 의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환영을 받았다. 또 7월 27일 오후 8시 안악 여자기독교청년회 예배당에서 개최된 허정숙 강연의 제목은 “조선여자교육회 사업 소개”였으며 기부금은 44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7월 29일 해주에서도 허정숙은 “조선여자교육회 사업소개” 주제로 강연했는데 이를 끝으로 더 이상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후에는 강연단 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전국 순회강연단에서 허정숙이 진행했던 강연 주제는 봉건에서 근대로 넘어가던 시기에 여성의 삶과 역할이 변화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또한 장소와 일정에 따라 강연주제가 같더라도 연사가 각기 달랐던 점으로 보아 연사들이 팀을 이루어 현지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여자교육회>의 전국 순회강연단은 실제 여성 힘만으로 장기간 동안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전국을 순방한 여성운동이었다. 이러한 규모와 기간의 전국 순회강연은 역사상 최초의 일이며 최대의 여성운동이었다. 1921년 10월 10일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여자교육회의 사업 - 조선 문화사상의 제1기록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조선여자교육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 중에서도 전국 순회강연단의 업적에 대하여 “이는 반도사의 신기록”이라고 그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였다.²²⁾ 이 때문에 조선의 본격적인 여성운동은 <조선여자교육회>로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며 허정숙의 여성운동 경험과 경력은 이로부터 출발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허정숙이 참여했던 7월 한 달 동안 순회강연단 프로그램에 기재된 연사의 이름이 “허정숙”이 아니라 “허정

22) 이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자교육회의 창립은 일년 반을 경과했고 지금까지 사업을 보면 상당한 회관을 소유로 정하였으니 이는 타 단체에 앞선 바 이오, 동시에 강연 혹은 연설회를 개최하여 주의를 선전하며 경과와 상황을 보고 하였고 야학강습소를 설치하여 2백여 명의 여학생을 교육하니 이 역시 동회의 사업으로 같이 기록할만한 것이로되 특히 금회 순회강연회의 사업에 이르러서는 오직 감탄할 뿐이라. 84일 장기간에 조선 전국의 남북동서를 편답하여 60여개소를 순회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경비는 삼천여원인데 지방인사의 동정과 원조로 충용하여 이천여 원의 의연금을 남겼다하니 이는 반도사의 신기록이라 남자 사회에도 일찍 단체 행동으로 80여일, 60여개소의 순회강연이 있지 못하였거늘...(중략)”

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때까지는 자신의 본명인 “허정자”를 사용했으나 상해 유학 이후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로 활동하면서부터는 “허정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또 이 시기 허정숙의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조선여자교육회>의 기관지인 『여자시론』에 두 편의 글을 게재했다는 것이다. 『여자시론』은 1920년 1월 24일에 창간되었으며 제2호부터 <조선여자교육회> 기관지로 발간되었다.²³⁾ 『여자시론』은 문체를 조선문으로 제한하여²⁴⁾ 조선여자계의 지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조선문을 보급하였으며 조선 유일의 우리글로만 된 부녀잡지였다.²⁵⁾ 또한 『여자시론』에 수록된 내용의 범주는 언론, 학술(위생 기타), 문예, 기타 등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도 주요 내용은 언론 부문으로 이는 “문예보다는 언론을 주안으로 하는 터임으로 이름을 시론으로 한다”라는 해설에서도 엿볼 수 있다.²⁶⁾ 허정숙은 1920년 5월에 발간된 제3호에 「현금 조선부인의 책임」이라는 글과²⁷⁾ 1920년 11월에 발간된 제5호에 「여자들이 일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²⁸⁾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허정숙이 이때부터 이미 조선의 여성들에게 “일하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 이 두 글의 원본은 구할 수가 없다.²⁹⁾ 1920년 5월

23) 박수경은 <조선여자교육회> 회장 차미리사가 『여자시론』을 인수하기 전에 <여자시론사>가 주최하였던 강연회에서 강연했던 점과 <조선여자교육회>의 임원인 유각경이 『여자시론』 1호에 글을 쓴 것으로 보아 <조선여자교육회>의 임원들과 <여자시론사>는 관계가 있었던 것 같으나 당시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는 『여자시론』을 인수하게 된 경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1920년대 전반 조선여자교육회의 교육이념과 활동』,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2쪽.

24) 『여자시론』 창간호 「투고환영」. 현재 창간호는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귀중본으로 소장되어있다고 한다. 한상권, 앞의 글, 364~365쪽.

25) 『매일신보』 1920.11.6., 11.11. 『여자시론』 제5호 관련 기사.

26) 『여자시론』 창간호, 「여인」, 한상권, 앞의 글, 365쪽.

27) 『동아일보』, 1920.5.7. 『여자시론』 제3호 신간 소개.

28) 『매일신보』, 1920.11.6. 『여자시론』의 목차와 필자 관련 기사.

29) 현재 『여자시론』은 창간호만 구할 수 있을 뿐 2호부터 6호까지의 실제 내용과 소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신문에 등장하는 광고를 통해 발간여부와 목차를 확인할 수 있다. 각 호에 게재된 글의 목차와 필자 목록은 박수경, 앞의 글, 33~34쪽 참조.

10일 『동아일보』 3면 오른쪽 아래에 게재된 『여자시론』 제3호 광고 내용을 보면 <조선여자교육회>와 『여자시론』의 이념적 지향을 짐작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여자계의 개조”였다.³⁰⁾ 이를 위해 여성들이 행동으로 적극 나설 것을 계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므로 허정숙의 글 역시 이러한 내용의 계몽적인 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여자교육회>에서 약 1년간의 활동은 허정숙에게 봉건적 제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식민지 조선 각지의 여성들을 직접 만나보는 매우 값진 현장체험이 되었으며 여성운동가로서는 여성교육운동에 중점을 둔 계몽주의 여성운동으로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다.

2.2. 사회주의 사상 입문 (1922년~1924년)

1921년 겨울 허정숙은 1920년 4월 설립된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³¹⁾ 이곳에서 허정숙은 이동휘의 집에 머물며 임원근과 박헌영 등을 만나 사회주의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다.³²⁾ 이 때

30) 구체적인 광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지의 주장은 개조! 개조! 개조! 우리 사회에 개조할 것이 너무도 많지요만은 제일 먼저 개조할 것은 우리 여자계에 개조, 우리 삼천리에 온 가정을 이상적으로 건설하고 우리 여자계의 앞길을 유쾌하게 개조하라함이외다! 개조! 개조!”

31) 김정일은 허정숙이 상해에서 영어를 배웠다는 점을 강조하고(55쪽) Ruth Barraclough는 중국어를 공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수현은 상해 금릉대학에 입학하고자 했으나 늑막염으로 수속만 하고 반 년 만에 귀국했다고 적고 있다(253쪽). 그러나 허헌이 허정숙에게 갖고 있던 기대를 고려할 때 오늘날과 같은 구체적인 유학이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이동휘와 같은 상해임시정부 요인들을 만나서 보다 넓은 세상을 보고 배우라는 의도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32) 허정숙은 일본에 유학할 때 사회주의를 처음 접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문헌자료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현재 많은 연구들이 상해로 가는 기차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지는 임원근과의 만남이 허정숙이 사회주의로 입문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허정숙의 사회주의 사상이 평화와 경멸의 대상이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허헌이 이미 사회주의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과 허정숙이 상해에 머물렀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허정숙이 임원근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사회주의 사상에 입문할 가능성은 매우 높

허정숙이 연인 관계로 발전한 임원근을 통해서 사회주의에 입문했다는 점과 그 둘이 박헌영과 주세죽을 서로 소개하여 연인관계로 발전시켰다는 점은³³⁾ 여성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이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폄하와 경멸을 받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³⁴⁾ 임원근은 박헌영과 함께 1921년 조직된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 상해지부 평당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상해 이르쿠츠크파는 사회주의연구소를 개설하여 가난한 학생들이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했었다. 이 시기에 허정숙은 임원근, 박헌영, 주세죽, 김단야, 고명자 등과 함께³⁵⁾ 『자본론』을 비롯한 사회주의 서적을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이 때 형성된 허정숙의 사상은 이후 그의 삶에서 나침반 역할을 했으며 사회주의 사상 중에서도 여성운동으로 그 활

후했다. 허정숙은 이후 이념적 행보에서도 여느 여성사회주의자들과는 차별화될 만큼 항상 주체적이었다. 장은영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여성사회주의자들은 연애라는 사적 가치가 혁명이라는 공적 가치를 현실 안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며 사랑의 충실성(fidelity)을 추구했다. 그러나 허정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으로는 그 아내된 사람이 언제까지든지, 즉 재회할 때까지 수절함이 원칙이요 또 그를 일반적으로 희망하여 좋을 일이나 현실문제에 들어가서는 경제 관계, 성관계 등으로 이상과 가치 실행이 되기 어려울 줄로 압니다”라는 논지로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장은영, 『아지트 키퍼와 하우스 키퍼 - 여성사회주의자의 연애와 입지』, 『대동문화연구』 제64집, 2008, 185~214쪽, 허정숙, 『남편 재옥·망명 중 처의 수절문제』, 『삼천리』 제10호, 1930. 11.

- 33) 박헌영과 임원근은 1920년 9월 이후 상해기독교청년회 부설 강습소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알게 된 절친한 친구 사이이며 역시 영어를 배우던 허정숙은 임원근과 열애 중이었다. 허정숙은 피아노 공부를 함께 하던 주세죽을 박헌영에게 소개하였고 둘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 박헌영과 임원근은 상해에서 공산당에 입당하고 <고려공산당청년동맹>을 조직한 후 이론학습에 열중했다. 박용옥, 앞의 책, 262쪽.
- 34)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김기진의 “대체로 여자라는 것은 국수주의자에게로 가면 국수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자에게 가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모양”이라는 말이다. 『신여성』, 제2권 11호, 1924.11, 50쪽. 이러한 점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18세기 여성운동의 시발점이 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와 그녀의 딸 메리 셸리(Mary Shelly)의 경우이다. “여성도 인간이다”라는 그들의 권리 주장은 파트너였던 윌리엄 고드윈(William Godwin)이나 퍼시 부시 셸리(Percy Bysshe Shelley)의 영향으로 읽힌다. 이러한 경향은 가부장제 역사와 함께 시작된 섹슈얼리티 역사의 한 부분을 반영하는 일례이다.
- 35) 허정숙, 주세죽, 고명자 등은 “장안의 여성혁명가 3총사”로 불리기도 하였다. 홍정자, 『내가 만난 북녘 사람들』, 살림터, 1994, 318쪽.

동방향을 전개해 나갔다. 임원근은 1922년 박현영, 김단야와 함께 8개월 간 평양에 투옥되었고 허정숙은 동아시아 3국의 근대적 공간을 넘나들면서 “여성사회주의자”로서 자아형성 과정을 거치게 된다.³⁶⁾

한편, <조선여자교육회>의 여성교육 계몽운동은 여성교육의 대중화로 확산되었고 그 영향으로 1921년과 1922년에는 지방에도 여성교육단체가 조직되어 활약하였다. 이처럼 1920년대 전반기의 여성운동은 기독교계 중심의 계몽주의 여성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이 같은 여성운동의 경향은 기독교 여성운동 세력의 결집을 가져오는 결과로 나타났다.³⁷⁾ 그렇지만 1924년 이후 여성운동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여성교육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여성운동은 점차 여성경제운동으로 진전되고 있었던 것이다. 박용옥은 이러한 사회변화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각 지방에서 그 지방에 맞는 독자적인 여성단체를 조직해간 점에서 1920~1923년과는 자못 다른 분위기였다는 점, 둘째, 여성운동을 여성만이 아니라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언론기관의 후원을 받아 범사회적 차원에서 행했다는 점, 셋째, 단순한 여성교양 쌓기로서의 교육운동을 일보 전진시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교육 및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여성단체를 조직하게 되었다는 점, 넷째, 직업여성의 경제적 독립 의식과 직업여성 사이의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직 여성단체가 조직되었다는 점, 다섯째, 자본가와 대결하여 여공들의 이익을 최소한으로라도 보장하고자 단결 조직된 여공단체가 급격하게 증가한 점, 여섯째, 사회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급진적

36) 이 시기에 허정숙이 상해에 남아 있었다는 기록도 있으나 권수현은 허정숙이 이 시기에 중국 남경 금릉대학으로 유학을 갔으나 녹막염으로 수속만하고 입학하지 못한 채 반년 만에 귀국했으며 그 후 고베 신학교에 다시 입학했으나 녹막염이 재발해 1924년 귀국했다고 적고 있다. 앞의 글, 253쪽.

37) 1923년 8월 18일 김활란, 김필례, 유각경에 의하여 창립된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는 3·1운동 이후 기독교 여성 세력의 증대라는 종교적 배경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필연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여성해방운동이 “돌풍처럼 일어나” 종전의 민족주의 계열의 여성운동과는 이념적으로 대립된 새로운 사조의 여성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³⁸⁾

이것이 바로 허정숙이 상해에서 돌아온 1924년 조선 사회의 변화된 상황이었다.

2.3. 사회주의 여성운동 (1924년~1925년)

허정숙이 상해에 머무는 동안 식민지 조선사회 역시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확산되어가고 있었다. 1924년 1월 18일 임원근이 출옥하고 허정숙도 귀국한 후 이들은 함께 2월 11일 해외유학파가 주류를 이루는 박헌영계의 <신흥청년동맹>에 가입하였다. 허정숙의 사회주의 운동가로서의 경력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허정숙은 김이조, 주세죽 등과 함께 이 단체에서 활동하였으며 4월 12일 <신흥청년동맹>은 <서울청년회>와 연합하여 <조선청년총동맹>을 창립하였는데 이 대회에는 전국 600여 청년단체 가운데 233개 단체의 37,150명이 참가하였다.³⁹⁾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인 5월 11일 <조선여성동우회>가 창립되고 허정숙은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조선여성동우회>는 본격적인 무산계급 여성의 해방을 기치로 내걸고 당시 지도적인 여성사회주의자 18명을 회원으로 확보하여 결성되었다.⁴⁰⁾ 이들

38) 박용옥, 앞의 책, 258~259쪽. 여성운동이 여성교육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 여성경제운동으로 변화해간 이러한 과정은 19세기 중반 영국 여성운동이 역사적으로 변화해간 과정과 닮아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여성운동이 등장한 점 역시 그러하다.

39) 박용옥, 앞의 책, 262쪽.

40) 이들 중 발기인은 14명이었다. 1924년 5월 23일 오후 8시 경운동 천도교당 내에서 거행된 <조선여성동우회>의 발회식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80여명 가량이었는데 그 중 50여명은 축하차 방문한 남성들이었고 약 10여명은 감시경찰관이었으며 여자는 발기인이자 간부들인 13~14명밖에 없었다. 취재를 위하여 참석했던 『신여성』

은 당시 사회주의 대중운동단체나 사회주의 전위당, 공산 청년조직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당시 허정숙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회주의 사상이 교과서적으로 반영된 <조선여성동우회>의 선언문과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선언문

“여자는 자못 가정과 임금과 성의 노예가 될 뿐이요, 각 방면으로 생활에 필요한 일을 힘껏 다하여 사회에 공헌을 하여 왔으나 횡포한 남성들이 여성에게 주는 보수는 교육을 거절하고 모성을 파괴할 뿐이다. 더욱 조선 여성은 그 위에 동양적 도덕의 질곡에서 울고 있게 하나 이러한 비인간적 생활에서 분기하여 굳세게 굳세게 결속하자.”

(2) 강령

1. 본회는 사회진화법칙에 의한 신사회의 건설과 신여성운동에 입(立)할 일군의 훈련과 교양을 기함.
2. 본회는 여성해방운동에 참가할 여성의 단결을 기함.⁴¹⁾

위에 제시된 선언문에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베벨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중심사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특히 여성을 노예의 일에 종사한 최초의 인간으로 보고 노예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노예였다고 주장한 베벨의 여성 노예론이 근간을 이루며 이후 허정숙이 발표한 많은 글

기자는 “여성동우회가 아니라 남성동우회 같다”는 평을 남기기도 했다. 『여성동우회 발회식에 갔다가』, 『신여성』, 제2권 6호, 1924.6, 10쪽. 그러나 전상숙은 여기서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주의를 기치로 내건 스스로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응집하고자 하였던 사회주의 여성 지식인들의 동태가 초보적인 형태로나마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여성동우회』를 통해서 본 식민지 초기 사회주의 여성지식인의 여성해방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2권 2호, 2001, 53쪽.

41) 『동아일보』, 1924.5.22.

에서 조선부인을 노예의 상태로 파악한 것 역시 이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언문에서는 첫째 사회주의의 보편적인 여성해방 사상으로서의 “가정, 임금, 성의 노예론”과 함께 “교육의 거절 및 모성의 파괴론”을 제시했고 둘째로는 동양적 및 한국적 특수성으로서의 “동양풍 도덕의 질곡”을 제시했다. 강령에서는 선언문보다 명백하게 “사회진화법칙에 의한 신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여성해방운동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운동을 위해 전 여성은 실천적으로 “굳세게 굳세게 결속”과 “단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여자동우회>는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본격적인 사회주의 여성운동 단체였다. 이들은 출판물 발행과 무산계급 의식을 불어넣은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을 통하여 여성대중에 대한 사회주의 선전과 교양활동에 주력하였다. 매주 월요일마다 1년 넘게 연구반 활동을 전개하여 1926년 1월에는 약 70 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노동부인 야학 설치, 여성단체 현황 파악 및 문고 설치, 지방순회 강연, 여성문제 단행본 출판, 음악회 등을 통한 사회활동을 목표로 삼았다.⁴²⁾

한편 조직 활동에 있어서는 지회설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⁴³⁾ <조선여자동우회>의 회원 수는 기독교계 여성운동 단체인 <조선여자교육협회>나 YWCA의 경우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적은 수였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매우 엄격한 회원 가입자격을 들 수 있는데 “회의 목적을 달하고 의무에 복종할 만한 굳은 뜻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조선여성으로서 입회 시 회원 2인 이상의 천거와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입회할 수 있었다.⁴⁴⁾ 그러나 회원들을 직업별로 분류해보면 학생이 가장 많고 의사, 간호부, 교원, 기자, 직공 등의 순이다.⁴⁵⁾ 그러므로 직공을 제외

42) 『동아일보』, 1926.1.14.

43) 동우회 지회 개설에 대해서는 70여개 개설, 40여개 개설, 10여개 개설 등이 있는데 정확한 총 지회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경미, 『1920년대 여성단체운동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70쪽.

44) 『조선일보』, 1925.12.21. 전상숙, 앞의 글, 46쪽 재인용.

45) TY생, 『사회운동단체의 현황~단체·강령·사업·인물』, 『개벽』 제66호, 1926.3, 49쪽.

하고는 당시 사회의 최고 전문직 여성들이란 점에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노동야학을 개설하였고 공장 방문대를 조직하고 노동부인을 위한 위안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지역 노동총동맹의 여자부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도 함께 참여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업은 여성운동 통일과 전 조선 여성운동자 대회 개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는 점이다.⁴⁶⁾ 또한 그들은 조선여성의 현실을 알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연구회 활동을 각 노동, 농민, 기타 직업여성 및 학생, 가정주부 등에 대한 통계 작성을 계획하는데 활용하였으며 여성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여성 직업 조합도 설립하였다. <조선여성동우회>의 이러한 활동 역시 강화된 일제의 탄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는 없었지만 주요 활동가들의 글과 신문 기사를 통해서 여성해방에 관한 그들의 입장과 활동을 엿볼 수 있다. 허정숙은 <조선여성동우회> 활동을 통해서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사회주의 사상을 식민지 조선사회의 여성들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회주의 여성운동 경험을 거치면서 식민지 조선사회 현장에 발을 디딘 여성사회주의자로서의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조선여성동우회> 활동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던 당시 허정숙의 주목할 만한 글로 1924년 11월 3일 『동아일보』에 발표한 「여자해방은 경제적 독립이 근본」을 꼽을 수 있다. “수가이”(秀嘉伊)라는 필명으로⁴⁷⁾ 발표한 이 글에서 그는 “여성은 경제상 독립을 얻지 못한 까닭에 이로 말미암아 생활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남자의 노예”가 되었으므로 여성해방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참다운 해방은 “여성 그들이 경제적 생활을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는 때야 비로소 실현되는 것”인데 현재 조선여성은 경제적 독립을 성취하지 못하여 “기생충”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예속

46) 『동아일보』, 1926.3.6. <조선여성동우회> 정기총회 기사.

47) 『신여성』에서는 “수가이”가 아니라 영어 이니셜을 사용하여 “SKY”로 표기하였다.

으로 인하여 성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은 부르주아 여성이나 무산여성에게 모두 공통적인 현상인데 “남성에게 옷과 밥을 구하기는 소위 ‘매음부’나 가정부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글은 <조선여성동우회> 선언문의 주요 사상이 잘 나타나 있으며 사회주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선언적 차원에서 표방하고 있으나 아직 조선여성의 구체적인 현실생활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2.4. 국제부인데이와 청년여성운동 (1925년)

1925년에 이르러 한국 내 사회주의 운동은 <화요회>, <북풍회>, <서울청년회>, <조선노동당>으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 여파는 <조선여성동우회>에도 미치게 되어 <경성여자청년동맹>과 <경성여자청년회>로 분리되었고 1926년에는 다시 한 단체로 합쳐져 <중앙여자청년연맹>으로 발전되었다가 결국 해체되었다. <경성여자청년동맹>은 <조선여자동우회> 중심 인물들 중에서도 <북풍회> 파와 연결되는 여성들이 모여 1925년 1월 21일 발기총회를 개최했다. 허정숙은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그 중에서도 주축은 허정숙, 주세죽, 김조이 등이었다. <경성여자청년동맹>은 창립 후 첫 사업으로 국제부인데이 기념 간친회(1925.3.8.)를 열고 (1) 국제부인데이의 의의를 널리 선전하고 이른 바 무산부인으로 하여금 이 날을 기념케 하고 (2) 세계무산부인운동가의 전기 발간 등을 결의했다. 1925년 3월 10일 『동아일보』 2면 왼쪽 위편에 이에 관한 기사가 간담회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있다. 「국제부인데이 기념 간친회 - 적색기념장을 가슴에 - 경성여청동맹」이라는 제목 하에 “재작 8일은 네 번째 맞는 국제무산부인데이”이므로 <경성여자청년동맹>에서는 “조선에서 첫 번 시험”으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곱시 반부터 열빈루에서 회원 이십여명이 모였음”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국제부인데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한 사람이 허정숙이라고 적고 있다. 이 기사는 오늘날 한국 여성운동계가 매년 연례행사로 기획하고 있는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조선에서 언제, 어떻게, 어떠한 양상으로 시작되었는가를 전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이 때 허정숙이 중심 역할을 했다는 점도 알려주고 있다. 이 첫 번째 기념행사에서는 참석자들 모두 “붉은 조화로 기념장(紀念章)을 만들어서 일제히 가슴위에 꽂았으며 최후로는 국제무산부인데이의 만세를 삼창하고 동 열한시경에 폐회하였다.” 이러한 <경성여자청년동맹>의 활동은 조선의 사회주의 여성운동이 조선내의 여성운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세계무산부인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며 동시에 <북풍회> 및 <경성여자청년동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정통성을 잇는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⁴⁸⁾ 이 단체는 <조선여자동우회>의 외곽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다른 사회주의적 여성단체들과 연합하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지향하였다. 이 단체의 주요 멤버들이 1925년 당시 조선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단발에 앞장섰던 것도 모두 이러한 <경성여자청년동맹>의 지향점과 맞닿아있다.⁴⁹⁾ 이와 같이 <경성여자청년동맹>은 청년여자의 교양과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여자동단체였으며 <조선여성동우회>는 그에 비해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사상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허정숙은 <경성여자청년동맹>에서는 <조선여성동우회>에서만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경성여자청년동맹>이 창립되던 같은 시기인 1925년 1월부터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1920년대 중반 허정숙을 비롯한 여성사회주의 지식인들은 여성 대중의 의식 각성뿐만 아니라 무산계급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들의 사회변혁을 통한 여성해방에 대한 주장이 일반 여성대중을 끌어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노력은 자본주의가 미발달된 식민지 조선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여성해방은 곧 사회변혁을 통한 해방으로 등식화되어 사회주의를 급진적, 교조적으로 수용함으

48) 박용옥, 앞의 책, 268쪽.

49)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단발: 근대적 여성주체의 아이콘 (1925년 8월)” 항목에서 자세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로써 주체적 역량의 부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전상숙은 당시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한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이러한 1920년대 중반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한계는 여성문맹률이 90%를 넘는 가운데 극히 소수의 ‘교육’의 특혜를 받은 여성지식인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수의 선진적인 여성 지식인들이 먼저 의식을 각성하고 일반 여성대중의 의식의 각성과 사회운동을 주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그들의 인식이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 대한 실증적 탐구에 기반하기보다는 급속히 보급되고 있던 사회조류에 편승함으로써 체화되지 못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이러한 한계는 또한 초기 여성 사회주의 지식인의 상당수가 비록 머리와 입으로는 여성의 해방을 외치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당시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⁵⁰⁾

위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때까지 조선의 사회주의 여성운동은 여성사회주의자들의 “인식이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 대한 실증적 탐구에 기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화되지 못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허정숙 역시 <조선여성동우회>와 <경성여자청년동맹> 운동을 통하여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로서 자신이 추구했던 여성운동의 한계를 절감했을 것이며 특히 식민지 조선의 구체적인 현실, 다시 말하면 문화적 측면에서의 봉건적 관습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척박한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1925년 이후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로서 허정숙의 사상과 활동은 점차 지식으로 접했던 사회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선언적 구호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식민지 조선여성의 구체적 일상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 탐구”로 옮겨가게 된다. 바로 이 점이 허정숙을 다른 여성사회주의자들과 차별화하는 지점이다. 다른 여성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의 사

50) 전상숙, 앞의 글, 54쪽.

회주의 여성운동이 식민지 조선의 특수한 상황에서 수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허정숙 만큼 광범위하게 “실증적 탐구”를 거쳐 식민지 조선의 여성운동 관점에서 성찰하고 그 방향과 전략을 수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대중적으로 피력하고 주장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와 같이 허정숙은 1920년부터 1924년까지 5년여 동안 식민지 조선의 여성사회주의자로서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고양하고 견문을 넓혀 나갔다. 그러나 그 과정은 혼자만의 독학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아시아 3국의 근대적 공간을 이동하면서 수많은 주변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여성운동을 정열적으로 실천해나가는 과정이었다. 허정숙은 여성운동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여성주의 관점을 조선의 일반 여성대중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무산계급 여성에 초점을 맞춘 실천적 여성운동을 펼쳐나갔으며 동시에 조선여성의 현실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습득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그의 폭넓은 경험은 삶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여성들에 대한 이해의 기회도 부여하였다. 비록 허정숙과 여성사회주의자들이 시도했던 사회주의 여성운동이 큰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허정숙 자신은 이러한 여성운동의 현장 경험을 통하여 조선의 여성사회주의자로서 “나”의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동시에 더 큰 조선여성 전체 “우리”라는 확대된 자아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3. ‘나’에서 ‘우리’로: 근대적 여성주체와 여성운동

3.1. 『동아일보』: 여기자로서의 여성운동 (1925년)

허정숙은 1925년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동아일보』의 여기자

로 근무하였다. 1920년 『매일신보』에 공채로 입사한 이각경을 시작으로 1922년 『개벽』사의 김경숙, 1924년 『조선일보』의 최은희와 『동아일보』의 허정숙, 『시대일보』의 황신덕, 『매일신보』의 김명순 등 여기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다. 근대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이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이들에 대한 기사를 쓸 여기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신문을 볼 수 있는 여자 독자층이 확대된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을 제약하던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당시 신문사의 남성중심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활동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1935년 3월 『개벽』 신간 4호에 발표된 「여기자 군상」이란 글에서도 신문사들이 “생색으로 여기자들을 채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신문사마다 단지 한 명 정도씩 채용했던 여기자를 “화초기자”라고까지 불렀던 점에서 당시 여기자의 사회적 역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여기자들은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사회 활동을 위해 기자라는 직업을 십분 활용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허정숙이다.⁵¹⁾ 허정숙은 이미 『동아일보』에 입사하기 전부터 여성 해방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입사한 후에는 기자로서 “어떤 것을 써야만 일반 부녀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⁵²⁾ 이러한 여성운동 의식과 관점은 허정숙 자신이 직접 사회주의 여성운동에 투신했던 자전적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렇게 습득한 체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는 조선여성들의 일상적 현실을 더욱 날카롭고 예민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부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운동을 실천해왔던 허정숙으로서는 신문 지면을 통한 글쓰기를 통해서

51) 강혜경, 「일제하 허정숙의 기자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0, 2007, 81~114쪽. 당시 허정숙의 남편이었던 임원근이 『동아일보』에 근무하고 있었고 아버지 허헌도 동아일보사의 중역을 겸하고 있었다. 당시 부부가 함께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여 “그들 젊은 부부가 원앙기자란 아호를 들으며 어깨를 가지런히 하고 발을 맞추어 화동 골목으로 드나들었다”고 전해진다. 「여기자 군상」, 70쪽.

52) 허정숙, 「문 밖에서 20분」, 『신여성』 제3권 4호, 1925.4.

또 다른 여성운동을 실천해 나갔다. 실제로 『동아일보』는 허정숙의 입사 이후인 1925년 1월 23일부터 부인면(2면) 기사가 2~3일 간격으로 실리고 있으며 그가 재직했을 당시의 부인면 기사는 5월 23일까지 실리고 있다.⁵³⁾ 여기자들은 주로 남성기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취재원에 대한 방문 기사를 썼는데 이 점은 허정숙 자신도 주로 여학교 순례 기사나 가정방문 기사를 썼다고 피력한 데서 잘 알 수 있다.⁵⁴⁾ 이와 같이 여기자로서의 활동 영역이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활발히 개진하던 허정숙은 날카로운 시평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갔으며 여성관련 사건의 취재와 시평 등의 집필을 통해서 여성해방과 여성 계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지난 5년여 기간 동안 계몽주의와 사회주의 관점에서 진행해왔던 여성운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사 작성을 해 나갔다. 그리하여 부인면 기사를 통하여 여성교육과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자신이 갖고 있던 신념을 글쓰기를 통하여 실천하였다.

허정숙이 게재한 부인면 기사들을 주제 영역에 따라 분류하면 여성교육의 현황, 여학생의 진로, 가정부인 교육 기관, 직업여성에 대한 소개로 나눌 수 있는데⁵⁵⁾ 이러한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1925년 4월 30일과 5월 8일 『조선의 현상과 부인 직업문제』를 상, 하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연재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금까지의 취재 경험을 정리하고 현상을 진단하는 성격의 글로써 “부인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졌지만 현재 조선사회에서는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상편에서는 먼저 “부인 직업 문제는 방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부인 교육 문제와 함께 실로 중대하고도 긴급한 문제”이며 “여성의 인격과 남성의 인격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한 생활체를 이루어”나가야 하는

53) 강혜경, 앞의 글, 95쪽. 허정숙의 『동아일보』 재직시 부인면의 자세한 기사 목록은 강혜경, 앞의 글, 98~100쪽.

54) 허정숙, 앞의 글, 52~54쪽.

55) 강혜경, 앞의 글, 100쪽.

데 “현재까지는 절름발이 가정에 불과했다”고 진단했다. 부인들 “스스로 일어나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먹을 것을 얻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부인에 대한 문제는 “다만 이론상으로 높아졌을 따름이요 아직까지 실질 상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조선사회에서는 부인이 직업을 갖는 문제가 “제도상으로는 순전히 길이 막히어버린 상태”라고 보았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현실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먼저 “다만 관공립학교의 교원이 약간 있을 따름인데 그 역시 특수 인물이 아니면 못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 말한다. 소위 자유직업으로 변호사, 의사 등도 있지만 변호사의 경우 “남자가 아니면 절대 되지 못한다”는 일본 법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에 있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써 “직업에 대하여 남녀를 구별하여 가지고 제한한다는 것”은 “절대로 좋지 못하며 실로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결론으로 여성이 인격적 주체와 경제적 주체를 동시에 이루어야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부인의 인격을 존중히 여긴다는 그 참된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사회의 원만한 발달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지식적 직업이 그리 필요치 아니한 현 우리 조선 부인 사회에 있어서는 당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도 같으나 내일이 다르고 모레가 다를만치 그만치 급속히 깨어나가는 우리 부인 사회로 하여금 앞에 그와 같은 지장이 가로 막혀 있는 것이 원만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그대로 묵과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⁵⁶⁾

이 글은 허정숙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동아일보』에 부인기자로는 허정숙만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과⁵⁷⁾ 또한 이 글에서 펼

56) 『동아일보』, 1925.5.8.

57) 강혜경, 앞의 글, 98쪽.

치고 있는 사상과 어조, 관점 등으로 보아 허정숙의 글이 틀림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4개월에 걸친 자신의 취재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여성이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사회제도의 개선이 필요한가를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여성해방은 경제적 독립이 근본”이라는 점을 선언적으로 주장해 왔다면 『동아일보』에서의 경험은 식민지 사회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조선여성이 당면한 문제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회문제와 현황을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점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결과 1925년 4월 『신여성』에 게재된 「문 밖에서 20분」을 비롯하여 이후 『신여성』에 발표된 허정숙의 글들은 주로 이러한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가 취재과정을 통하여 직접 체험한 남녀관계의 현실은 남편은 “아내에 대해 전횡과 우월감을 함부로 행사”하는 반면 여성은 “궁하고 슬픈 소리 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1925년 5월 동아일보사 내에서 “철필구락부 사건”이 일어나고⁵⁸⁾ 허정숙은 이 사건을 계기로 『동아일보』를 사직했다. 그렇지만 1930년대 초반까지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 등에 자주 글을 기고하였으며 여성사회주의자들 중에서도 대중과 소통하기 위하여 가장 열정적으로 많은 지면에 자신의 글을 발표하였다.

3.2. 『신여성』: 개성적인 여성주체 (1925년~1926년)

“신여성”에 대한 담론 연구를 진행했던 김수진은 잡지 『신여성』의 초간호(1923년 9월호부터 1926년 10월 정간호까지)와 속간호(1931년 1월

58) “철필구락부”는 일간지 사회부 기자들로만 구성되었던 단체로 그 성격은 훨씬 선명하였다. 1925년 5월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기자들이 사회부 기자의 급료를 인상하라고 경영진들에게 요구하며 파업하였는데 이 파업은 신문 노동자로서 최초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동아일보』에서만 파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시기에 ‘조선공산당’이 창당되는 것과 연결하여 민족개량주의 세력의 대변지였던 『동아일보』에 대한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호부터 1934년 6월 중간호까지)에 기고한 필자들의 성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이 확인된 필자들의 구성은 남성 필자가 약 50%, 여성 필자가 약 25%이고 편집부 및 기자의 글이 19.7%, 확인되지 않은 필자의 글이 약 5%라는 점을 밝혀냈다. 특히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편 논설을 쓴 필자는 총 74인이며 186편을 실었는데 남 47인 143편, 여성 27인 43편이다. 이 중 논설을 2편 이상 실은 여성 필자는 5명인데 비해 남성은 26명이다. 여성의 5배가 넘는 남성들이 논설을 실었음을 알 수 있다.⁵⁹⁾ 여성 중에서 가장 많은 논설을 실은 필자는 허정숙과 박순옥이다. 허정숙은 1925년 11월호 특집 편집을 맡으면서 논설을 여러 편 썼으며 박순옥은 1932년 ‘신여성평단’이라는 고정란에 연속적으로 논설을 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김수진은 “필명으로 보이는 영어 이니셜 중 SKY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했지만 매우 자주 등장한 이름이다”라고 적고 있으며⁶⁰⁾ “스카이”라는 필명으로 게재한 글도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허정숙은 『신여성』에 가장 많은 논설을 기고한 필자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1925년 8월호 『신여성』에는 권두의 글 「향촌에 돌아가는 여학생 제군에게」를 비롯하여 「여름의 추억」이라는 기획 중 「갈대수풀에 울든 여름」을 “SKY”라는 필명으로, 또 산문 「회오(悔悟의 기도)」를 “스카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하였다.⁶¹⁾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허정숙의 글들은 경제적 독립을 강조하며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을 표방했던 글들이었던데 비해 1925년 하반기와 1926년 초 『신여성』에 기고한 글들의 특징은 조선여성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젠더 정체성과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59)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190~191쪽.

60) 앞의 책, 189쪽.

61) 「갈대수풀에 울든 여름」은 일본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기억하는 여름 풍경을 쓴 것이며 「회오의 기도」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던 오빠”가 내게 “착실이 공부하여 개성에 눈뜬 여자 되어서 허영에 홀리우지 말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며 “이제는 눈물도 변민도 아무것도 다 없어졌으며 오직 멍텅이처럼 의식없는 산송장”이 되었음을 후회하는 글이다.

글들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1925년 4월호에 발표했던 「문 밖에서 20분」은 『동아일보』 기자로서 근무했던 자신의 직업적 경험을 성찰하며 한층 더 발전된 이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허정숙은 조선 부인의 지위가 열등한 이유를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적인 남성에게 노예가 되었고 성적으로 남편에게 구속을 받고 있는 이중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전처럼 단순히 “경제적 독립이 근본”이라는 추상적 구호의 차원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현 사회조직을 개혁하는 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실천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허정숙이 다른 여성사회주의자들과 차별화된다. 사회주의 사상을 조선의 당면한 현실과 접목하였을 때 어떠한 사회구조 개혁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성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8월호에 게재된 글 「향촌에 돌아가는 여학생 제군에게: 계몽운동으로부터 사회적 교양과 훈련에」 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여성운동을 함께 실행해 나갈 “동지들”인 “여학생 제군”에게 여성운동의 구체적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글로서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학생 제군”에게 이 “짧은 동안의 휴가가 생명수가 될 것”이지만 “이 같이 인생의 향락의 한 끝을 맛보고 즐기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한가한 타임을 이용하여 의의있게 지나기를 희망하여 몇 마디 쓰려한다”고 글 쓰는 목적을 명백하게 밝힌다. “청년기만은 1인의 인생에서 가장 의식있게 사는 시절”이므로 “이 기회를 산 기회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며 이런 틈을 타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개척해야겠고 우리 부인운동의 당면한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학창에서 단조하게 공부하는 제군에게 사회적 고역을 맛보게 하는 것 같으나 현재 우리의 처지로는 제군같이 공부하여 중등 정도의 지식이나마 갖고 또 청춘기에 있는 제군들을 떼어 놓고는 사회 일을 돌아봐줄 사람이 실상 없는 까닭”이라고 말하면서 “여학생 제군”의 역사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일깨운다. 이와 같이 당시 조선

의 사회역사적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관점을 바탕으로 한 허정숙의 글쓰기는 그 폭과 깊이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다음 단락으로 가면 당시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여성운동과 부인운동의 시급함과 간절함이 묻어나는 표현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제군 -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조선은 이제야 겨우 당신네와 같은 눈뜬 여성을 내어놓은 것이다. 실로 제군은 조선의 중추요 보배이다. 결코 학생이라고 방심할 처지가 아니요 시기가 아니다. 생각해보라. 오늘날 조선에는 제군과 같이 학업을 닦게 된 행복스러운 여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첩첩히 쌓여있는 당면의 문제가 누구의 힘을 기대하고 있는가를...⁶²⁾

이어서 당시 조선 부인들의 구체적 생활상을 묘사하는 단락이 나온 후에 “이것이 현재의 우리 사회상이고 더욱이 부녀계의 비참한 장면의 일 폭이거나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인간성의 가동이 없지 못할 것이다. 상님이 여기에 도달하니 조선여성의 선각자 또는 지도자인 제군아 그대들의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말하면서 대중과 대화하는 “말걸기”(speak to) 기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향촌에 파묻혀있는 부인이며 어린 처녀들은 당신들에게 암암리에 요구함이 많다. 우리는 부인운동의 입구인 계몽운동으로부터 시작하자 우리가 학교에서 받은 교육, 지식 그것을 다시 향촌에서 배움에 주리어 있는 문맹의 여성들에게 가르쳐주자 깨우쳐주자 고상한 과학적 지식이 소용되지 않는다. 오직 초보이니 언문뿐이라도 좋다”라고 “여학생 제군”이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얼마나 귀중한 여성인력인가를 깨우쳐준다. 그렇기에 그들의 역사적 사명이 더욱 중차대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오늘의 당신들에게는 그 이상의 사업이 없으며 그것이 모든 사업의 기본임을 망각지마라. 여기에, 즉 여

62) 『신여성』 제3권 8호, 1925.8, 3쪽(통권 97쪽).

성의 교육에 낡은 도덕과 관습을 부수고 새 천지와 새 사회의 무수한 가능성이 잠재하였음을 특히 기억하여야 한다.”⁶³⁾ 이 구절은 허정숙 자신이 <조선여자교육회>에서 시행했던 여성교육 계몽운동에 참여했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이제는 차세대에게 그 역할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저 아무 것도 하는 것 없이 40일 50일 동안을 헛되이 보냈다하면 그 대신에 당신이 얻은 것은 무엇이겠느냐 역시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상에는 비록 짧은 동안이라도 향촌의 부인들에게 언문이라도 가르쳐주고 세상의 되어가는 사정을 말해드리면 그 얼마나 반가워하고 또한 조선의 장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말로 맺는다.⁶⁴⁾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에서는 방점까지 찍어서 여학생들에게 힘주어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 단락은 마치 글이 아니라 연설을 듣고 있는 듯하다.

다음은 계몽운동에서 개성의 의미를 인식케하고 계급적으로 회합하는 기관을 지어 그 의식의 속성을 도모하며 사회적으로 교양이 있고 훈련이 있게 하자 이것이 오늘 조선인 전체의 공통된 요구이며 희망이고 당신들로서는 최선의 행동이며 의무임을 인식하자.

제군! 함께 일어나자 농촌의 부녀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1925년 7월 8일)⁶⁵⁾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허정숙의 여성운동이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가 잘 나타나 있다. 즉 계몽운동을 통해 조선 농촌의 부인들이 “개성”(인격)의 의미를 인식케 하고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후 그 곳에서 “교양”과 “훈련”을 진행하자는 내용이다. 비록 “여학생 제군에게” 당부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이 글은 당시 허정숙이 여성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었는가를 가늠케 한다. 허정숙은 이

63) 앞의 글, 4쪽(통권 98쪽).

64) 앞의 글, 5쪽(통권 99쪽).

65) 앞의 글, 5쪽(통권 99쪽).

때 뿐만 아니라 1935년 중국으로 떠날 때까지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여성운동의 미래 가능성은 여학생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였다.⁶⁶⁾ 미래 세대로서의 여학생들에게 여성운동의 방향과 실천을 부탁하는 위 글에서도 당시 조선사회에서 여학생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신념에 가득 찬 어조와 어휘에서는 현장운동가로서 그 자신의 경험이 묻어 나온다. 그러므로 이 글은 여학생들에게 여름방학 동안 향촌에 돌아가 부인들에게 언문을 가르치라는 단순한 부탁을 넘어서서 허정숙이 여성운동에서 여학생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가와 함께 지금까지 여성교육 계몽운동과 경제적 독립운동에 중점을 둔 당시 여성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선회할 것인지 예측 가능하게 한다. <조선여자교육회>와 <조선여성동우회>를 통해 습득한 여성운동 경험과 『동아일보』에서의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식민지 조선여성의 현실은 여학생으로부터 시작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후 10월부터 허정숙은 본격적으로 『신여성』의 편집인으로 참여하여⁶⁷⁾ 1925년 11월호에는 그의 글 3편이 각기 다른 필명으로 나란히 게재되었다. 첫 번째 권두언은 “편집인”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살리라」는 글이 게재되었고 두 번째 글은 허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번민을

66) 그가 1930년 1월 투옥된 <근우회> 사건 역시 “경성여학생만세사건” 때문이었고 이로 인해서 1년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67) 허정숙이 개벽사에서 『신여성』의 편집인으로 일할 때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여기자 군상」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가 지면으로 얼마만한 활동을 하였던지 그것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의 지식으로나 수완으로나 결코 남성기자에 一頭를 讓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그 뒤에 그가 개벽사로 전근하여 신여성 책임을 맡아볼 때에 자기의 손으로 논문을 쓰고 편집을 하고 인쇄 교정까지 하여서 잡지를 상당히 내놓은 것으로 보아 그 실력을 짐작하겠고 신여성에 단발호를 내어 일반여성의 단발을 주장하는 동시에 자기가 숭신하여 여성동우회의 주세죽 외 某某 여성과 같이 용감하게 단발한 것을 보면 그의 主義 또는 실행력이 상당히 강한 것을 또한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여기자라는 이보다 여성투사란 것이 옳겠다. 그리하여 동아나 개벽사에 있을 때에도 그 기자의 직무보다도 여성동우회 등에 더 충실하였다. 월급은 자기 사생활에 쓰는 것이 적고 동지 또는 단체활동에 많이 充用하였다.” 70~71쪽.

논하야』라는 논설이 게재됨으로써 이 특별호의 별칭이 “번민호”로 불리는 역할에 일조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은 필명 “SKY”로 게재한 글 『미래의 여성이 되라』이다.⁶⁸⁾ 그 중에서도 권두언 『감정을 살리라』는 여성도 인격적 주체임을 주장한 글로써 조선여성들이 감정이 없는 노예에서 주체적 개성을 가진 인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조선사회가 요구하는 “부덕”을 벗어던질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왜냐하면 조선여성은 “선량한 부덕”이라는 미명하에 “자기를 억압하는 모든 감정을 흘려보내버리고 그것을 분개할 줄 몰랐고 또 반항할 줄도 몰랐으며 번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성과 인격을 갖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우리 여성의 감정은 순하다...그래서 우리 여성은 마땅히 감정을 내어야 하고 분개하여야 할 일에 분개할 때에 오직 순수하게 유약하게 지냈었다. 그래서 우리는 천치와 바보, 멍텅이의 대우를 받고도 부끄러운 줄 분할 줄도 모르고 도리어 정당한 일처럼 알고 지나왔다. 이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발달이 없고 향상도 없으며 진보도 없다... 우리의 감정이 살아있다 하면 우리는 이렇게 있지 않고 벌써 번민에 빠졌으리라. 무엇보다도 번민에 싸여서 큰 고통 중에 있었으리라. 벌써 그 고통에 열매까지 맺혀 어떠한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었으리라. 그러나 아직 없다. 여성아. 우리는 감정을 살리자 분노를 일으키자 또 고통하자 (고통을 느끼자) 여기서 새로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⁶⁹⁾ (필자강조)⁷⁰⁾

이 글은 권두언이므로 먼저 “우리 여성”이 인격적 주체로 나설 것을 주장하고 그 당시 인격적 주체로서의 감정을 살리게 되면 “번민”이 반드시 수반될 것이므로 “번민”의 과정이야말로 새로운 여성주체로 거듭나기

68) 그 다음 글은 이성환의 『허영적 번민과 실천적 번민』이고 곧 이어서 “신여성의 5대 번민”이라는 제목 아래 특집으로 기획된 5편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69) 『신여성』 제3권 11호, 1925.11, 1쪽(통권 307쪽).

70) 앞으로 인용단락과 본문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필자의 강조임.

위해서 통과해야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글 『우리 여성의 번민을 논하야: 여성의 번민과 해결책』에서는⁷¹⁾ 자신이 주장하는 “번민”의 개념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가령 여기에 무엇이나 순응하여 고(苦)라는 것을 모르는 인간이 있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번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번민 그 물건은 고(苦)와 서로 연결된 상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번민이 많습니다. 만약에 번민을 모른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고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준(準)인간이요 완(完)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민이라는 이것은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난 이의 의례히 가지는 것의 한가지요 또 가지지 않으면 아니될 것입니다.... 또 이 번민의 폭탄이라는 것이 반드시 남이 집어넣어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자기를 주체로 하고 그 환경으로부터 분기하여 가지고 그 자기자신의 속으로 드러가는 것입니다.** 또 번민은 각양각색으로 다방면에 잠재합니다. 그러므로 대저 번민이라는 것은 유아기에 있는 인간에게는 없다 하여도 과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기로부터는 반드시 이 번민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민 이것은 청년으로부터 그 이상 장년기에까지 가장 많은 것입니다. ⁷²⁾ (필자 강조)

여기서 허정숙이 주장하는 “번민”에 대한 개념을 자세하게 해석하면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 “나(I)”를 갖고 있다면 “번민”은 그에 따라 수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지점에서 허정숙은 “우리” 조선여성들이 하나의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조선여성 개개인이 개체로서의 자아 “나”를 가진 주체가 되어 각자의 번민을 갖자고 제안하는 것

71) 앞의 목차에서는 “여성의 번민을 논하야”로 표기된 반면 실제 게재된 글의 제목은 “우리 여성의 번민을 논하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당시 『신여성』에 게재된 허정숙의 글쓰기는 “우리 여성”의 개념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2) 앞의 글, 2~3쪽(통권 308~309쪽).

이다. 결국 조선여성 “우리”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선여성 각자가 “감정”을 살려서 각자의 “번민”을 하는 주체, “나”로 거듭나자고 호소하고 있다. 이어서 “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번민 중에 여성의 번민에 대해 그것을 말하고 싶고 또 쓰려고 합니다”라고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남성의 번민의 양이 백 근이라면 여성의 번민의 양은 이백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으로서 공통된 번민에 있어서 남녀가 다 같이 맛보고 다시 성적(性的)으로서 여성이 번민을 맛보는 그 점으로 보아 여성의 번민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번민”이란 개인적 차원의 번민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번민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여성의 번민을 해결치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여성이 당하는 번민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0000의 결함(결함)이 있는 까닭”이므로⁷³⁾ “우리는 우리 여성의 번민을 해결키 위해서는 또 우리의 모든 결함을 안정케 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그 때에야 여성의 진실된 번민의 해결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선여성” 각자가 “나”를 찾아야만 개인적 차원의 “번민”을 경험하게 되고 그 “번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0000의 결함(결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는 번민의 해결을 위하여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번민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허정숙의 글이 있는데 그것은 “SKY” 라는 필명으로⁷⁴⁾ 번역(譯)하여 쓴 “미래의 여성이 되라”라는 글이다. 앞의 두 글에서는 “감정”과 “번민”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 글의 끝에 “여성개조(女性改造)에서”라는 표시로 짐작하건대 「여성개조」라는

73) 원문에 이렇게 “0000”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허정숙 자신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싶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74) 유교 중심의 조선사회에서 남성은 하늘로, 여성은 땅으로 여겼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정숙이 자신의 필명을 SKY, 즉 “하늘”을 사용했다는 점은 그의 주체성과 봉건사회에 대한 문화적 반역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그러나 영어로 표기하여 이니셜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문화적 반역은 은밀한 것이었다.

외국 글을 번역한 것이다.⁷⁵⁾ 이 글은 “여성이 강력하고 위대한 힘을 잃어버렸으므로 여성 그 자신의 독특한 생명의 발현에 착안하여 가지고 모든 성실과 근면과 노력을 모으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한 글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글들은 당시 조선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빈민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신여성의 5대 빈민”이라는 주제 아래 “미혼여성의 남모르는 고민(영자)”, “여교 졸업한 처녀의 빈민”(정순덕), “자유 결혼한 신여성의 빈민”(정애), “직업을 못 구해서 우는 신여성”(김영희), “구가정으로 드러간 신여성의 고민”(황봉덕)의 순서로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있는 조선여성 개개인들의 빈민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같은 호에 허정숙이 쓴 글로 짐작할 수 있는 글이 하나 더 있다. <평론>이라는 분류 아래 “정숙(晶淑)”이라는 필명으로 게재된 글인데⁷⁶⁾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여성의 도태”이고 두 번째는 “착오된 교육방침”이다. 첫 번째 글은 “모든 현실이 여성이 도태되어가는 그것”만 나타내는데 “매일 신문 지상을 통하여 보면 여성은 날마다 매매되어가고 타락의 구렁으로 팔려”가는 세태를 논하고 있다. 당시 사회의 모든 것이 도태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같이 극단의 비운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진단한다. 오늘의 모든 현상은 여성 자신으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만들었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자아를 강경히 살리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여성은 자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아를 강경히 살리려고 할 것 같으면”이란 표현은 “개성적인 인격을 갖춘 주체”를 의미한다. 그의 판단에 따르면 1925년 식민지 조선사회는 주체적인 여성이 살아남기 어렵고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

75) 당시 해외에서 유입된 글로써 제목이 “여성개조”인 듯하다. 이 당시 허정숙은 이미 일본어와 중국어, 영어를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어떤 외국의 글을 번역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76) 허정숙은 『신여성』 1926년 1월호에서도 “정숙(貞淑)”이란 필명으로 “『무엇보다 자각과 단결』”이란 글을 썼는데 이 글의 필자가 허정숙인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다. 그러므로 그 단락의 끝에서는 “이것이 **우리 여성**이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볼 것의 최종대한 한가지다 여성인 사람이 사람에게 팔린다 사회에 팔린다 타락된다 **우리 여성** 아! 도태되어가는 여성의 무리를 잘 보자 또 자신을 보자 그리고 곧 **우리는** 여기서 반성이 있자 일어나자 이것이 **우리 여성의** 살 길이다”라고 끝맺고 있다(필자 강조).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의 글에서는 경제적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고 “아멘”만을 교육하는 기독교 교육에 대해 질타하면서 “대저 제군의 조선여자교육의 본의가 거대한 신도명부 작성에 있는가 현실살이하는 사람교육에 있는가”라는 말로 끝맺고 있다. 허정숙이 일찌감치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또 여성 자신의 주체성을 강조한 여러 가지 표현을 고려할 때 이 글은 허정숙이 쓴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신여성』 1926년 1월호는 “여성운동가 허정숙”을 논할 때 분수령을 이루는 시기에 발간된 특집호이다. 이때부터는 조선의 여성운동에 대한 열정이 더욱 강해졌으며 추상적인 개념화의 단계를 넘어서 여성운동의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들이 제시된다. “신년과 새 결심”이라는 권두언에서 허정숙은 “송구영신의 소리와 함께 인생을 구원하고 심오한 새로운 『인스피레순』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쓰면서⁷⁷⁾ 곧 이어 “조선 여성아! 우리의 지난 1년을 돌아보자. 우리는 무엇을 하였나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리고 “의식있는 새해”를 맞기 위해서 “우리 조선여성”들이 실천해야 하는 신년의 새 결심을 큰 글자로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一. **우리는** 지나간 날의 미지근한 감정을 내어버리고 정열있고 예민한 감정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개성을 살릴 줄 알고 위할 줄 아는 여성이 되자.
- 一. 완전한 개성을 살리기 위하여 이중노예를 만드는 **우리의** 환경에 반

77) “『인스피레순』”은 허정숙이 표기한 그대로이며 inspiration, 즉 “영감”을 뜻한다.

역하는 절실한 자각이 있다.

- 一. 이 절실한 자각 밑에서 **우리 여성**은 서로서로 처지 같은 여성들끼리 함께 결합하여 여성의 위력 인간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자.⁷⁸⁾ (필자 강조)

이 글은 앞에서 인용했던 <조선여성동우회>의 선언문과 강령을 연상시키는 형식으로 비록 허정숙 개인의 주장을 담은 글이지만 마치 식민지 조선사회 여성인권운동의 선언문과 강령처럼 느껴진다. 또한 이 짧은 글에서 허정숙이 주장하는 요점은 18세기 영국 여성주의자이며 작가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 1759-1797)가 최초의 페미니즘 저서로 평가받는 『여성의 권리옹호』(*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1792)에서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인권을 주장했던 점을 상기시킨다. 또 이어지는 새해 소망을 적은 글 『무엇보다도 자각과 단결을』에서는 조선여성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단락이야말로 조선여성 개개인이 개성을 갖추고 독립된 인격적 주체로 거듭 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때의 허정숙은 이중 노예 상태의 질곡에서 신음하고 있는 조선여성 개개인들로서는 경제적 주체로 나아가는 것보다 먼저 인격적 주체가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이 자리에서 여성되신 여러분에게 좀 더 큰 자각이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는 아침 일 년간을 추상하는 그 감정의 순간에 일 년간 우리가 밟을 최선의 길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주마등같이 우리의 지나간 날의 생활을 회상합시다 그러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구구한 지나간 날의 생활을 한심히 생각하는 한숨과 좀 더 낮게 살아보려는 신생(新生)의 격동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우리 조선 여성” 모두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어조로 시작하면서 새해 실행에 옮겨야 할 구체적인 행동 방침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78) 『신여성』, 제4권 1호, 1926.1, 3쪽(통권 395쪽).

이 순간 이 격동을 감정에 그것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성을 돌려 새로운 자각을 하시고 결심을 하십시오.... 새해부터는 **우리**의 생활을 좀 정예(精銳)의 눈으로 살펴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반듯이 발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에 큰 자각이 있으십시오. **우리는 우리** 생활에 대하여 **예민한 감정**을 가지십시오.... 또 자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일치한 기치(旗幟) 하에 모여들어 **우리**의 힘과 힘을 모아 **우리**의 신생을 개척하는 운동을 하십시오⁷⁹⁾ (필자 강조)

위의 짧은 단락에서 자주 쓰인 “우리”라는 표현이야말로 당시 허정숙이 “우리 조선여성”들에게 개성을 갖춘 인격적 주체가 되기를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가를 반영한다.

또 같은 기획주제 “신년의 企望과 소원” 아래 또 다른 글 『농촌여성에게』는 SKY라는 필명으로 기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농촌 부인들도 글자를 알고 우리 살림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자”고 주장하면서 “『여러분은 금년부터 배우십시오』라는 것이 새해 축복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 조선 농촌들도 배워야겠습니다. 금년부터 배우기를 시작합시다. 나는 이것을 목이 찢어지도록 외칩니다”(필자 강조)라고 끝맺고 있다. 식민지 조선사회 내에서 문맹의 농촌 여성을 근대적 여성주체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요원하고 힘든 길인지를 체험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허정숙의 안타까움과 절실함은 “목이 찢어지도록 외칩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허정숙이 조선의 도시와 농촌 전국의 여성들을 그의 “우리 조선여성” 개념에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대상마다 세세하게 여성운동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허정숙이 『신여성』에 기고한 글들은 “나”와 “우리”를 넘나들면서 조선여성 개개인이 봉건적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자아”를 인식하고 “변민”하여 “근

79) 앞의 글, 5쪽(통권 397쪽).

대적 여성주체”로 전환하여 “우리의 0000의 결합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신여성』에 게재된 그의 글들은 이전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여성사회주의자로서의 면모보다 봉건적인 일상생활에서 이중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조선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추구하는 “조선의 여성주의 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다. 당시 허정숙이 지향한 여성운동은 조선여성 개개인 “나”의 차원에서 여성주체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확대된 자아 개념 “우리 조선여성”으로 나아가는 의식혁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⁸⁰⁾ 이와 같이 1925년 1년 동안 『동아일보』와 『신여성』을 통한 허정숙의 경험과 성찰은 1926년으로 해가 바뀌자마자 여성운동을 함께하는 동지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제시한다.

허정숙은 1926년 1월 3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 「신년과 여성운동: 선각자는 수양에 더욱 노력」에서 앞으로 조선의 여성운동이 나아갈 방향과 여성운동을 이끌어갈 “선각자”가 갖추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허정숙이 여성운동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글 중에서 가장 자세하고 공적인 지면에서 조선 여성운동의 특수성을 주장한 첫 번째 글이다.⁸¹⁾ 물론 이 글의 내용은 당시 여성운동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즉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코민테른의 방침과 식민지 조선의 여성이 처한 봉건적 상황을 동시에 극복해 나가는 여성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⁸²⁾ 그러나 “우리 조선여성”이 아니라 “선각자”, 즉 여성운

80) 1970년대 미국의 여성운동은 베티 프리단의 『여성의 신비』 출판 이후 소그룹별로 진행된 “의식혁명”(consciousness raise)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허정숙은 사회주의 여성운동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개별 여성주체의 의식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성운동의 방향 전환을 꾀하였다.

81) 허정숙이 조선 여성운동의 특수성을 주장한 가장 유명한 글은 그가 미국여행을 다녀온 뒤 1928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동아일보』에 발표한 「부인운동과 부인문제 연구: 조선 여성의 지위는 특수」이지만 이 글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시기를 벗어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82) 당시 제3인터내셔널(Communist International, 이하 약칭 코민테른(Comintern))에서 여성운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코민테른의 제3회 대회는 공산당 자신

동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므로 앞의 『신여성』에 발표한 글들과 비교할 때 보다 현실적으로 여성운동의 방향과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평등사회를 조성하고 있는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는 여성운동단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노농단체, 청년단체와 같은 부문 운동이 선행되지만 조선에는 “여성 그 자체의 사상혁명, 계급혁명 등의 해방을 부르짖고 사회에 나온 운동, 즉 여성의 사상운동과 교양운동에 청년여자운동”인 여자단체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조선에서는 봉건적인 관습과 도덕이라는 구속에 여성이 얽매어있어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열등한 자리에 있는 까닭에 반드시 여성으로서의 “특수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수한 운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중운동”을 의미하며 곧 “여성은 계급적으로 반항하고 투쟁하여야하며 또 성적 반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여성으로서의 성적 혁명과 무산계급으로서의 계급혁명을 말한다. “현 자본주의 사회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도저히 완전한 여성해방이 오지 않는 것”이므로 “같은 압박을 받는 무산계급의 해방운동과 일치”되어 “진실한 해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성운동의 단계는 첫째가 “여성 자신이 개성으로서의 자각이 있어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계급적 자각을 가지고 운동에 임해야 할 것”이라 하여 여성으로서의 “사상혁명”, 즉 의식혁명을 통한 계급혁명으로의 발전단계를 설정하였다. 이 글의 결론 부분에서는 당시 조선의 여성운동을 이끌어가는 선각자가 새 해에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교양에 더욱 힘쓸 것”과 “진실한 운동자가

의 주도로 독립된 여성조직을 설립하는 문제에 관해 단호한 반대를 결의했다고 알려져 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실천의 경험에 비추어 별개의 일반적 여성조직이 필요함을 꾸준히 제기했고 일본도 ‘성별조직’으로서의 관동부인동맹을 결성하였다가 원칙에 위배된다하여 다시 해체하는 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우리의 경우 코민테른의 여성정책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논란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다. 당시 사회주의 이론가들과 여성활동가들은 여성부를 기본적인 조직 형태로 생각하고 별도의 여성 대중 조직의 결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과도적, 특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듯하다. 즉 조선의 현실, 조선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연숙, 『그녀들의 이야기, 신여성』, 역락, 2011, 165~166쪽.

될 것”을 제시한다. 이 부분은 말하기에 가까울 정도로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엄격하고 단호하다.

다음에는 여성운동단체의 자체교양에 관하여 간단히 서면 관계도 있기 때문에 몇 마디 쓰렵니다. 자체에 있어서 너무나 교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운동이나 그러한 것이지만 **여성운동 그것은 더 많이 알고 수양하여 조직하는 그것이 일인데 자체의 내용이 너무나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즉 교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교양하지 않은 것은 아니로되 도저히 그같이 미미한 교양은 아무런 성과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교양이 부족함을 따라 사람이 사상적 근거가 없고 기분에 뜨며 그저 세계적 형세에 농락되어 버리기 쉽게 됩니다.** 쉽게 된다는 그것보다도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년에 있어서는 선구자 그 자신은 더욱이 교양에 힘써서 사상에 확실한 근거를 잡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주위에 충실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에 더 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여간 **진실한 운동자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송구영신하는 나의 일소감입니다. (필자 강조)

이 글은 약 9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지침서가 될 만한 글이다. 또한 여성운동 분야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선각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교훈이 될 만한 글이다. 어쨌든 허정숙의 “나”와 “우리” 개념은 이와 같이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더 큰 “우리”, “조선 여성”을 위하여 확장되어가고 있었다.

3.3. 단발: 근대적 여성주체의 아이콘 (1925년 8월)

1922년 강향란이 자신의 이상과 자유의사에 따라 단발한 최초의 조선 여성이 되었을 때 사회적 충격은 대단하였다. 강향란은 “나도 사람이며

남자와 똑같이 살아갈 당당한 사람이다. 남자에게 의뢰를 하거나 또는 남에게 동정을 구하는 것은 근본으로부터 그릇된 일이다”라고 주장하며⁸³⁾ 사람답게 의미있는 삶을 살겠다는 자각의 표시로 단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여성해방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후 강향란은 이름을 姜石子(또는 姜石者)로 이름을 바꾸고 1922년 결성된 <조선무산자동맹>에 들어가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하였다. 또 상해, 일본 등지를 방문한 후 귀국하여 배우 생활을 하는 등 방황하다가 1928년 이후로는 <근우회> 경성지회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여 여성운동에 전념하였다.⁸⁴⁾ 이 시기에는 여성의 단발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으나⁸⁵⁾ 강향란의 단발은 충동적인 개인행동이 아니라 여성해방을 표방하는 시대사조의 반영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성의 단발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남성의 단발은 1895년 11월 30일(음력 11월 15일) 김홍집 내각이 위생에 이롭고 활동에 편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단발령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이후⁸⁶⁾ 약 30여년에 걸쳐서 지속되어왔다. 그러므로 남성의 단발은 차츰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분위기였다.⁸⁷⁾

83) 『동아일보』, 1922.6.24. 원래 강향란은 대구 출생이고 본명은 姜海先이며 일찍이 경성에서 기생을 하였다. 1920년 11월 어느 청년문사와 장래를 언약하고 기생업을 폐한 후 배화여자학교 보통과에 입학 후 1922년 봄 고등과 1학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하였다. 그러던 중 뜻밖에 실연을 당해 투신하였다가 극적으로 구원된 후 마침내 남자와 똑같이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굳은 결심을 한 후 시내 광고에 있는 중국 이발관에서 단발을 감행하고 남자양복을 입었다. 한상권, 『1920년대 여성해방론: 단발론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87, 2007, 159~160쪽.

84) 앞의 글, 161쪽.

85) 가장 대표적인 글은 염상섭이 1922년 8월 『신생활』 8호에 발표한 글 『여자단발문제와 그에 관련하여』가 있으며 그는 이 글에서 외형상 마리만 자른다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며 여성의 본분과 장점을 잃지 않는 가운데 내적 충실에 힘쓰는 것이 여성해방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앞의 글, 162~163쪽.

86) 그러나 민중들의 반일의식이 표출되어 김홍집은 민중들의 돌에 맞아 죽었고 고종의 머리를 깎아준 농상공부대신 정병하는 “고종황제의 머리를 강제로 깎았다”는 죄명으로 참형을 당했다. 앞의 글, 155쪽.

87) 1922년 9월 20일 『동아일보』에는 학교에서 학생을 단발시킨 데 분개한 학부형이 학교의 문짝을 부수고 선생을 때렸다는 기사가 게재된 반면 10월 11일 『동아일보』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여성사회주의자들은 단발을 여성들의 인격과 주체의식이 반영된 관습 개선으로 받아들였고 차츰 여성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로 발전시켜 나갔으며 이에 따라 여성해방 담론도 발전시켜 나갔다. 1925년 8월 20일 『동아일보』 가정통신 난에 평안북도 독자가 당시 “단발을 주장하는 의미와 가치, 또 조선여자들도 일반이 다 깎게 될는지 가르쳐 달라”는 질문에 대한 기자의 답을 살펴보면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단발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기자는 “여자 단발은 아직 선전시기에 있고 실행시기가 되지 못하므로 단발이 유행될는지 아니 될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만 위생, 미관, 경제 등 방면으로 보아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보다 며칠 전인 8월 16일 투고한 독자의 질문에 기자가 “좋은 줄 알면서 실행 못하는 것은 용기가 없어 그런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당시 많은 여성들이 단발을 원하면서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어서 기자는 “약 삼십 년 전에 조선 남자가 머리를 다 깎게 될까하는 의문을 가졌던 생각을 하면” 여성의 단발도 “미루어 알 바가 있겠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바로 그 다음날, 여성사회주의자 3인이 함께 단발을 감행했다.

1925년 8월 21일 오후 6시경 감행된 여성사회주의자 3인, 허정숙, 주세죽, 김조이의 단발은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곧이어 『조선일보』에 게재된 그들의 단발 기사는 사회적 담론에 불을 붙였다. “부녀자의 단발이 외국에서는 이미 진부한 일이나 조선에서는 그것을 단행한 그 용기가 대단한 것”이라며 단발이 종래의 불합리한 제도를 타파하고 부자연한 인습을 개혁하려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에서 적극적인 평가를 내렸다.⁸⁸⁾ 또 그 즈음 발간된 『신여성』 제3권 8호는 “단발 문제의 시비?!”라는 제목으로 단발에 대한 특집을 기획하였다. “여자가

에는 『조선 유일의 단발촌, 사천군 구암리에서 남자는 일제히 단발』이라는 기사가 게재되기에 이르렀다.

88) 『조선일보』, 『부인단발』, 1925.8.23.

머리를 깎는다면 우리 생활에 비추어 새로운 문제일까 합니다. 그러므로 단발 이것이 우리로서는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라고 기획 취지를 밝힌 후 “각 여학교 책임자 제씨”와 “사회유지 몇 분”의 단발문제에 관한 의견을 게재하였다. 학교측 담당자로는 이화, 동덕, 숙명, 배화, 진명 등의 여학교 담당자들과 차미리사, 주세죽 등 자유주의 여성운동 진영과 사회주의 여성운동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게재하였다. 그 중에서도 차미리사는 “단발은 머리해방을 얻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시간 돈 위생 이 세 가지로 유익할 것은 물론이고 그로 하여 자기의 심신을 일신하고 따라서 생활로나 사상으로나 펴 새로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장점을 주장했다. 게다가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머리가 있을 적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시원하고 돈 안 들고 시간 안 걸리고 다만 빗 한 개만 있으면 아무 때라도 곱게 치장될 것입니다. 깎는 것이 좋고말고요 적어도 머리에서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⁸⁹⁾ 한편 사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주세죽은 “나는 단발을 주장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모든 인류의 풍습은 각 시대를 따라 문물제도과 생활방식이 변화되고 진화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했다. 또 단발이 여자의 미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완농(玩弄)의 대상이 되는 객관적 미는 점차 소멸되는 것이니 별로 상대방의 염려를 바라지 않지만 그 미야말로 부르주아지의 『욕망의 자유』에 대한 수단이 된다하면 ... 속히 없애야 할 것입니다”라고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했다. 또한 여자의 단발은 “남자의 양복처럼 편리한 점”이 있으므로 단발을 주장하며 “단발로써 많은 편의를 얻는다는 것을 더욱 말하여드립니다”라고 끝맺었다.⁹⁰⁾ 게다가 이 기획특집의 마지막 글인 「나의 단발 후 감상」은 실제로 단발을 실행한 “S 生”이란 필자가 쓴 글로 “여자로서 단발한 후의 실감 참 편리하고 좋다”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단발을 망설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발 전후의 심경을 알려주는 글로 “사실 단발하기 전에는 그렇게 그 같이 각 방면으로 보아

89) 『신여성』, 제3권 8호, 1925.8, 42~43쪽.

90) 앞의 책, 44쪽.

편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관계치 않으리라고는 생각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짚고 보니 그렇게 편한 것은 다시 없습니다”라고 생활의 편리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결론 부분에서 단발이 결국 여성의 주체성과 관련된 것임을 매우 온건하게 주장한다.

단발한 것이 편의상으로나 경제상으로 편발(編髮)보다 나은 것만치 미관상으로도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날 부인의 편발이 재래의 관습으로 존재가 있다고 하지만 그 관습이라는 것이 남자의 노예라는 상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별안간 단발로 남자의 노예의 지위를 벗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단발이 아무 의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하간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지위를 혁신하는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풍속이나 관습 그 모든 것은 시대를 따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우리의 살림을 개혁하는 것과 같이 우리 생활의 양식도 시대를 따라 합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⁹¹⁾ (필자 강조)

위 글에는 당시 조선사회에서 단발이 생활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근대적 여성주체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배경을 실용적이고 이념적인 관점으로부터 설명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단발”이 근대적 여성주체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읽힐 만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25년 조선사회에서 근대적 여성주체를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떠오른 여성의 단발에 대해서 여성해방론적 이론과 자전적 경험 모두를 제공한 글이 바로 『신여성』 1925년 10월호에 발표된 허정숙의 「나의 단발과 단발 전후」이다. 이 글은 당시 여성의 단발에 대해 발

91) 앞의 책, 51쪽. 이 글의 필자인 “S生”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이 글의 논리적 어조와 “관습이라는 것이 남자의 노예라는 상징”, “여하간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지위를 혁신하는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라는 구절로 보아 이 글의 필자가 허정숙일 가능성은 꽤 높다고 판단된다.

표된 글들 중에서 여성의 주체적 입장을 가장 잘 나타낸 글이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전개와 자전적 경험을 피력하는 어조는 매우 차분하고 담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자의 단발! 이것이 아무 별 문제 거리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심은 단발 단발하고 여기저기서 한 이야기 거리가 되어있는 듯하다”고 전제한 후 “결코 단발 그것이 일반의 여론을 일으킬 그런 괴상하고 망칙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공손하게 피력한다. 또 “관습, 인습이라는 것은 시대를 따라서 변천되는 것”이므로 여성의 단발도 “한 작은 관습이 개량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제까지 여성의 미! 이것은 노예적 정신 아래에서 일개 완농물의 미가치 밖에 갖지 못한 그런 미”였기 때문에 더욱 구속으로 얽어매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과거 여성미에 대한 사상을 근본으로부터 부인하고 불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단발”이라는 실천적 행위는 여성 자신의 인간으로서 주체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여성은 여성자신으로서 단발하는 것이 (각 개인의 취미대로) 어떠한 의미로 보든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자기의 두발 그것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 얼마나한 모욕을 받아왔으며 현재에 있어서 적나라한 인간성에 돌아가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불편하고 구속되는 점이 많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단발 그것은 현 사회제도를 부인하고 거기 딸린 풍속이나 관습, 도덕, 법률을 부인하는 현대상(現代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⁹²⁾

그리고 이어서 “우리 3인”은 “동지로서 친구로서 공통된 의사 아래에서 단발하기로 오래전부터 작정해왔기에 함께 모인 시간에 단발을하기로 언약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허정숙 자신이 가장 먼저 머리를 잘

92) 『신여성』, 제3권 10호, 1925.10, 16쪽.

랐는데 가위를 들고 남의 머리를 베는 그 때에는 “이제까지 잠재하여 있던 인습의 편영(片影)이 나타나며 몹시 참담하고 지혹(至酷)한 느낌을 아니 가질 수 없었습니다”라고 당시 자신의 개인적 감정과 오랜 문화적 관습이 그 순간 자신의 내부에서 어떻게 충돌했는가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자전적 느낌을 시시각각으로 표현한 점은 일반 독자들에게 그 순간의 감정을 더욱 세밀하게 느낄 수 있는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당시 3인의 느낌을 매우 자세하게, 그러나 설득력있게 보여주고 있다. “다 깎은 뒤에 3인은 서로 변형된 동무의 얼굴을 쳐다보며 비장하고도 쾌활미가 있는 듯이 웃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의 단발의 막은 열렸습니다. 우리는 웬 일인지 서로 알지 못한 위대한 이상과 욕망이나 행한 듯이 무조건으로 기뻐했습니다. 또 무슨 귀신탈이나 벗은 듯이 속이 시원하고 상쾌한 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단발이라는 그 자체를 보아서 별다른 것이 없으려만 단발한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주목받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발! 이것이 결코 사회적으로 여론을 일으킬만한 중대한 문제가 아님과 동시에 여성으로써 개개인의 취미와 각오에 의하여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이 발표되고 난 후 『동아일보』 부인란에는 「유행하기 시작하는 여자 단발에 대하여 - 다른 사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여자는 호사로」라는 글이 게재된 것으로 보이⁹³⁾ 그즈음 여자의 단발이 유행하기 시작했으나 그리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까지도 조선사회에서 여자의 단발은 허정숙이나 여성사회주의자들이 기대했던 만큼 선풍적인 대중화를 일으키지는 못했다. 그럴 때 허정숙과 여성사회주의자들은 “여성운동”이라는 대의를 위하

93) 이 글은 러시아나 미국의 많은 여자들이 단발을 하게 된 경위가 전쟁 참가로 인한 실용적 관점에서 대중화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우리는 우리나라 여자들이 머리 빗을 시간이 없으리만치 무슨 큰 일이 생기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많은 여자들이 머리깎기를 바란다. 그러나 머리를 깎는 동기가 여기 있지 아니하고 남이 깎으니 나도 깎아볼까 하는 심히 박약한 동기 아래서 깎는다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다”고 단발에 부화뇌동할 것을 우려하는 구절도 있다. 『동아일보』, 1925.11.16.

여 전략적으로 “여성의 단발”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1928년 12월 허정숙은 『단발했다가 장발된 까닭』이라고 소제목을 붙인 글에서⁹⁴⁾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 단발을 하고 또 우리 필요에 의하여 장발을 하는 데야 남이 조소를 하던지 상관할 것이 있으랴 다만 문제는 단발과 장발이 우리의 일을 하여가는데 어느 것이 유리하냐는 그것뿐이다”라고 단발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중과 호흡하는 “우리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허정숙 자신이 <근우회> 활동 등 여성운동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신하고 있던 상태이므로 “우리의 일”이 대중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경험으로 보면 여자의 단발이 자기 개인으로는 시간의 경제로나 위생상으로도 미관으로도 여러 가지가 다 좋지마는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데는 아직 환경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고 현실적 상황을 인정하였다. 여성운동의 측면에서 “적어도 민중 속에 들어가서 서로 손을 잡고 물에 물 부은 듯이 술에 술 부은 듯이 아무 간격과 색채와 차별이 없이 일을 하자면 아직까지는 단발한 것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은 것 같다”(필자 강조)고 진단하고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곤란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므로 “나도 미국에서 귀국할 때에 머리를 다시 기르게 되었다. 지금도 조선에 있기에 그렇지 만일 외국에 간다면 다시 단발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경험상으로 보면 과거 우리의 단발은 첫 시험 중에 한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나 한사람뿐이 아니라 우리 동무 중에 단발로써 장발한 사람은 모두 그렇다고 하겠지요”라고 단발을 둘러싼 여성운동이 1928년 그 시점에서는 실패였음을 인정했다. 이와 같이 1920년대 중·후반 조선사회에서 “단발”이라는 주제는 근대적 여성주체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떠올랐지만 실제로 대중들은 그에 대해서 그리 호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시 허정숙이 “단발”과 “근대적 여성주체”라는 여성운동 주제를 둘러싸

94) 『조흔 經驗 新試驗失敗談』, 『별건곤』, 제16·17호, 1928.12.

고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나”와 일반 조선여성 “우리” 사이를 어떻게 가늠하고 전략적으로 여성운동을 계획, 수정, 실천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 결국 여성의 단발은 1920년대 중·후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시간이 흐른 1930년대 초·중반에 가서야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4. 결론

허정숙은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조선여성들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 성찰한 후 그에 따라 방향전환을 하면서 당시 여성운동의 좌표와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가 이렇게 당시 여성운동에서 선각자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대상과의 비판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지식(교양)과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1926년 1월 3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의 마지막 부분 역시 허정숙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교양이 부족”하면 “사람이 사상적 근거가 없고 기분에 뜨며” 그렇게 되면 외부적 상황에 “농락되어 버리기 쉽게 된다”는 점을 허정숙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⁹⁵⁾ 허정숙은 1927년 10월 미국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근우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고⁹⁶⁾ 마침내 기관지인 『근우』에 『근우회 운동의 역사적 지위와 당면 임무』라는 지침서 역할을 하는 글을 발표했다. 그 글의 첫 부분에서 허정숙은 <근우회>가 과거의 여성운동과 차별화되는 지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95) 김효주는 허헌과 허정숙의 미국여행기를 분석한 논문에서 허헌의 여행기에서는 대상세계에 압도당한 여행주체의 대상에 대한 감탄과 경이가 주를 이룬 반면 허정숙의 여행기에서는 대상세계에 대한 비판적 거리가 유지되며 여행주체의 삶의 자세가 재정비된다고 말하고 해석과 가치판단을 극대화하여 초점화의 서술방식을 보여주는 특징에 주목하였다. 김효주, 『1920년대 여행기에 나타난 미국 인식과 표상 - 허헌·허정숙의 미국 여행기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9, 2013.11, 33~57쪽.

96) <근우회>에서 허정숙의 공식 직책은 제2대(1928.7~1929.7)와 제3대(1929.7~1930.12) 중앙 상무집행위원이었으며 <근우회> 본부의 핵심적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과거의 운동이 부분적이요 분산적 운동임에 비하여 여성의 대중적 참가를 목표로 출현한 근우회의 사명은 전 조선 여성을 과거 역사적 모든 질곡에서 해방하여 줄 열쇠이며 조선 여성을 사회적 의식에 각성하여 전체적 운동으로 인도하여 줄 거화(赫火)이다.⁹⁷⁾

“조선의 여성운동가” 허정숙과 <근우회> 활동과의 관계는 또 다른 연구주제이다. 하지만 조선 역사상 “전 조선 여성”을 “사회적 의식에 각성하여 전체적 운동으로 인도하여 줄 거화(赫火)”로 정의되는 <근우회> 운동의 “역사적 지위와 당면 임무”를 작성했다는 점만으로도 허정숙이 “조선 여성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그 후 1929년 말 광주학생운동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경성여학생만세사건”으로 검거되어 1930년 1월 투옥되고 3월 징역 1년의 형을 받았으나 출산 후 후유증으로 인한 간성 늑막염에 걸려 가석방되었다. 1931년 6월 5일 서대문형무소에 재수감되어 1932년 3월 18일 만기 출소했다.⁹⁸⁾ 그러나 허정숙은 수감 기간 중에도 여러 가지 여성의 권익을 위한 글들을 다양한 지면에 발표하였으며⁹⁹⁾ 여전히 세상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고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그 변화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출옥 후 발표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허정숙은 “운동이 지하선하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함께 여성들의 변화상에 대해서 관찰한 바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여자들이 개인주의로 눈을 떠 가지고 향락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얼른 눈에 띄웁니다. 의장(衣裝)이 꼭 동경의 10년 전 과도기에 있어서와 같

97) 허정숙, 『근우회 운동의 역사적 지위와 당면 임무』, 『여성 3: 한국여성의 노동 현실과 운동』, 여성사연구회 편, 창작과 비평사, 1989, 305~306쪽.

98) 서형실, 『정열의 여성운동가 허정숙』, 212, 214쪽.

99) 이 시기동안 발표한 중요한 글로는 『삼천리』에서 실시한 설문 “남편 재육·망명 중 처의 수절문제”에 대한 답의 형태로 써서 발표한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가 있다. 『삼천리』 제10호, 1930.11.

이 별 이상야릇한 것이 다 많드구만요 그러나 그대로만 본다면 재미없지만 그것이 과도기에 있어서 한 과정으로 본다면 비판할 것은 없을 줄 압니다. 여성운동은 전체운동의 일부분인 만큼 농촌여성과 노농여성이 각성하여 일어난다면 호화로운 생활에 떠있는 여성들 짚은 문제도 아니니까요.¹⁰⁰⁾

허정숙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조선의 여성운동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출옥 후에는 여성운동에 몸담지 않고 아버지 허헌과 함께 <태양광선치료원>을 개원하였는데 이 역시 기사로 보도될 만큼 주목받았다.¹⁰¹⁾ 그리고 1935년 여름 중국에서의 항일 무장독립투쟁을 위하여 조선을 떠났다.¹⁰²⁾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허정숙은 1920년대 초반 봉건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대표적인 여성운동가로서 여성주의 의식의 고양과 효과적인 여성운동에 대해서 고민했다. 그의 다양한 글쓰기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조선여성 개개인 “나”로부터 조선여성 전체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근대적 여성주체로 변화하기 위해서 식민지 조선 현실에 맞는 여성운동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전략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허정숙은 자신의 글쓰기를 여성운동의 또 다른 실천 방식으로 생각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글의 대부분은 “우리 조선여성”들에게 함께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쓰였다. 이 글이 시도했던 바는 “조선의 여성운동가”로서 허정숙에 대한 재평가인데 그가 근대적 여성주체의 이상으로 생각했던 점은 이중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인격적으로 독립적인

100) 『허정숙 출옥방문기』, 『신동아』, 1932.6.

101) 『허정숙 여사의 태양광선치료원, 일대의 여류운동가 허씨가 자연과학전당으로 진출!』, 『삼천리』제4권 제9호, 1932.9. 이 글은 삼청동 빨간 벽돌 이층집에 마련된 허정숙의 <태양광선치료원> 방문기로 허헌과 허정숙이 함께 치료원을 개원했으며 허헌이 더욱 관심이 많아 개원한 것을 허정숙이 도왔다고 적고 있다.

102) 허정숙은 『동아일보』에 근무할 당시 자신의 급료와 가재도구 등을 팔아서 독립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허근옥은 사촌인 석이오빠로부터 “자금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정숙 누나는 돈이 될 만한 골동품을 잘 내다가 팔았지”와 같이 들었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전했다. 허근옥, 앞의 글, 285쪽.

여성주체가 되는 것이었고 이는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경제적 주체가 되는 것보다 한 발 앞선 개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여성이 경제적 주체가 되기에는 식민지 조선의 사회적 현실이 너무 척박하다는 점을 사회주의 여성운동 경험과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통하여 인식하게 되었고 그보다 먼저 조선여성 개개인이 봉건적 일상생활로부터 개성을 갖춘 근대적 여성주체가 되는 것이 더욱 급선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어지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보다 포괄적인 허정숙의 활동과 사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秀嘉伊(허정숙), 「여자해방은 경제적 독립이 근본」, 『동아일보』, 1924. 11. 3.
 허정숙, 「문 밖에서 20분」, 『신여성』 제3권 4호, 1925. 4.
 허정숙, 「향촌에 돌아가는 여학생 제군에게: 계몽운동으로부터 사회적 교양과 훈련에」, 『신여성』 제3권 8호, 1925. 8.
 허정숙, 「나의 단발과 단발 전후」, 『신여성』 제3권 10호, 1925. 10.
 허정숙, 「우리 여성의 번민을 논하여: 여성의 번민과 해결책」, 『신여성』 제3권 11호, 1925. 11.
 허정숙, 「감정을 살리라」, 『신여성』 제3권 11호, 1925. 11.
 허정숙, 「신년과 새 결심」, 『조선일보』, 1925. 12. 8.
 허정숙, 「신년과 여성운동: 선각자는 수양에 더욱 노력」, 『조선일보』, 1926. 1. 3.
 허정숙, 「신년의 企望과 소원: 무엇보다 자각과 단결을」, 『신여성』 제4권 1호, 1926. 1.
 허정숙, 「부인운동과 부인문제연구: 조선여성 지위는 특수」, 『동아일보』, 1928. 1. 3~5.
 허정숙, 「조혼 經驗 新試驗失敗談」, 『별건곤』 제16·17호, 1928. 12.

허정숙, 「근우회 운동의 역사적 지위와 당면 임무」, 1929, 『여성 3: 한국여성의 노동 현실과 운동』, 여성사연구회 편, 창작과 비평사, 1989, 305~311쪽.

허정숙, 「남편 재육·망명 중 처의 수절문제」, 『삼천리』 제10호, 1930. 11.

2. 단행본 및 논문

강혜경, 「일제하 허정숙의 기자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0, 2007, 81~117쪽.

김경일, 「식민지 시기 미국 체험과 문화 수용: 김마리아, 박인덕, 허정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1, 2006, 45~91쪽.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1~510쪽.

김연숙, 『그녀들의 이야기, 신여성』, 역락, 2011, 1~374쪽.

김효주, 「1920년대 여행기에 나타난 미국 인식과 표상」, 『한국민족문학』 49, 2013, 33~57쪽.

박수경, 「1920년대 전반 조선여자교육회의 교육이념과 활동」,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50쪽.

박용옥, 『한국 여성 항일운동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1~482쪽.

서형실, 「허정숙: 근우회에서 독립동맹투쟁으로」, 『역사비평』 21, 1992, 278~287쪽.

서형실, 「정열의 여성운동가 허정숙」, 『여성과 사회』 3, 1992, 198~222쪽.

송진희, 「허정숙의 생애와 활동: 사상과 운동의 변천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45쪽.

이소희, 「『9월 원숭이』에 나타난 자전적 서사 연구: 신여성의 근대 체험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제40집 2호, 2008, 173~213쪽.

장은영, 「아지트 키퍼와 하우스 키퍼 - 여성사회주의자의 연애와 입지」, 『대동문화연구』 제64집, 2008, 185~214쪽.

전상숙, 「'조선여성동우회'를 통해서 본 식민지 초기 사회주의 여성지식인의 여성해방론」,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22권 2호, 2001, 33~57쪽.

조경미, 「1920년대 여성단체운동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1~112쪽.

조 은, 『여성·젠더·제도: 근대의 패러독스』, “문화의 안과 밖” 39회 강연, 『젠더 담론의 정치성 확보는 새로운 의제 실천 지점』, 『교수신문』, 제754호, 2014. 11. 3.

한상권, 『일제강점기 차미리사의 민족교육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6집, 2001, 339~407쪽.

한상권, 『1920년대 여성해방론: 단발론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87, 2007, 147~185쪽.

허근욱, 『나의 언니 허정숙』, 『북한』 10, 1972, 282~286쪽.

허근욱, 『나의 아버지 허헌과 언니 허정숙』, 『역사비평』 26, 1994, 211~232쪽.

홍정자, 『내가 만난 북녘 사람들』, 살림터, 1994, 1~360쪽.

Barracrough, Ruth. “Red Love and Betrayal in the Making of North Korea: Comrade Ho Jong-suk” October 22, 2013, USC Korean Studies Institute Seminar.

3. 신문 및 잡지 기사

김미리사(차미리사), 『단발은 머리의 해방』, 『신여성』 제3권 8호, 1925. 8, 42~43쪽.

주세죽, 『나는 단발을 주장합니다』, 『신여성』 제3권 8호, 1925. 8, 43~44쪽.

S 생, 『나의 단발후 감상』, 『신여성』 제3권 8호, 1925. 8, 49~51쪽.

TY생, 『사회운동의 현황 - 단체·강령·사업·인물』, 『개벽』 제66호, 1926. 3, 44~56쪽.

작자미상, 『여자교육회의 순회강연 여자해방의 신운동』, 『동아일보』, 1921. 7. 11.

작자미상, 『여자교육회의 사업 - 조선 문화 사상의 제1 기록이 된다』, 『동아일보』, 1921. 10. 10.

- 작자미상, 「조선여자교육협회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2. 3. 25.
- 작자미상, 「여성동우회 발회식에 갔다가」, 『신여성』, 제2권 6호, 1924. 6.
- 작자미상, 「류행하기 시작하는 여자 단발에 대하여 - 다른 사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여자는 호사로」, 『동아일보』, 1925. 11. 16.
- 작자미상, 「허정숙 여사 아버지를 따라 서양만류」, 『동아일보』, 1926. 5. 30.
- 작자미상, 「허정숙 여사 25일 귀국」, 『신한민보』, 1927. 10. 27.
- 작자미상, 「허정숙 출옥 방문기」, 『신동아』, 1932. 6.
- 작자미상, 「여기자 군상」, 『개벽』 신간 4호, 1935. 3.
- 작자미상, 「강한 자여! 그대는 여자니라」, 『신여성』, 제7권 2호, 1933. 2.

Abstract

From ‘I’ to ‘We’: Heo Jeong-Sook and the Modern Woman Subject

Lee, So - Hee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ing process of Heo Jeong-Sook’s focus on the women’s movement from the “I” of each Joseon woman’s personal self to the “we” of the whole of Joseon women’s modern subjectivity in the colonial Joseon society of the early 1920s. It focuses on Heo Jeong-Sook’s points of view on the subject of modern woman as influenced by socialist feminism and the modernization of the colonial Joseon from 1920 to 1926, just before she left for the USA in May 1926. As a feminist activist, Heo Jeong-Sook was first involved in the women’s education movement in 1920-1921, because women’s education was necessary for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and home and, finally, it would lead to the transformation of colonial Joseon society. In 1921-1924 she learned socialism in Shanghai in China and participated passionately in the socialist women’s movement through socialist organizations. After working as a newspaperwoman in *Dong-A Ilbo* in early 1925, she could understand the hostile life-circumstances of all Joseon women, whereby they were doubly treated as slaves, both personally and economically. She wrote her own feminist ideology for the modern woman in the contemporary feminist magazine *New Woman* in 1925-1926. She urged that Joseon women should struggle not against men or their

husbands, but against traditional customs and the everyday lifestyle. She thought that, because Joseon women were under multiple repressions such as feudalism, patriarchy, capitalism and colonialism, the independent women's movements would be necessary for both sexual and class emancipation in those days. She therefore insisted on revitalizing the keen senses of Joseon women with individual selfhood by resisting the daily patriarchal oppressions. As a kind of cultural icon of the subject of modern woman, she adopted the practice of cutting her long hair along with other socialist feminists, which brought a sensational cultural shark into colonial Joseon society. Based on socialist feminism, Heo Jeong-Sook sought ways of raising feminist consciousness among Joseon women, and finding out what kind of feminist strategy could be effective for the modern woman and efficient for the women's movement in the early 1920s.

Key words : Heo Jeong-Sook, Modern Woman Subject, New Woman, Women's Movement, Woman, Gender

■ 본 논문은 2015년 3월 20일에 접수되어 2015년 3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4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